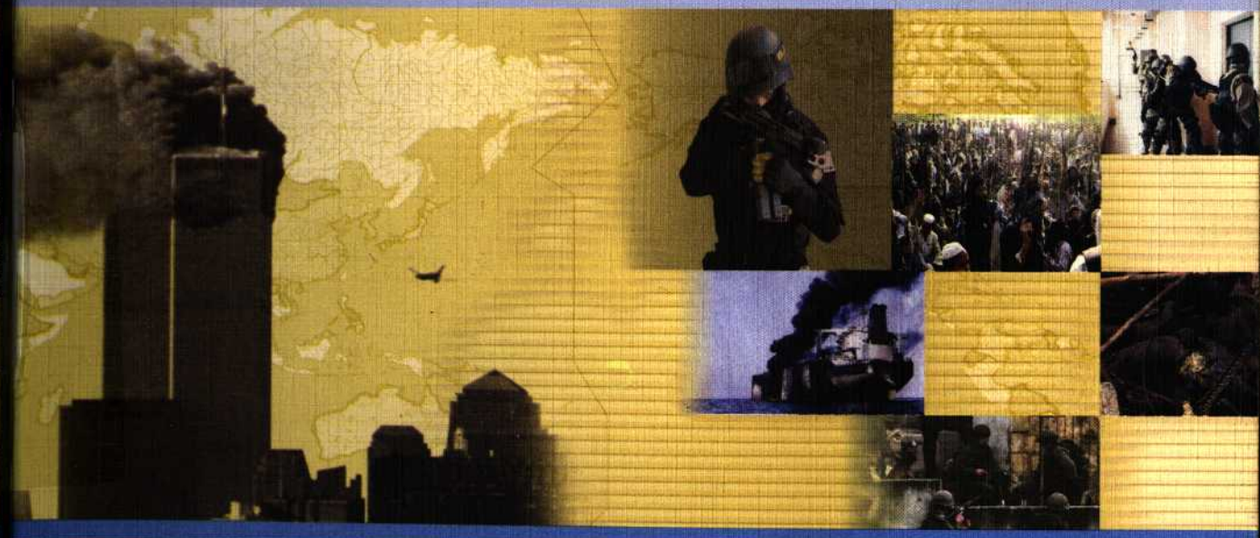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SAf1.9

2003년도 대테러 학술세미나

21C 새로운 테러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주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후원 : 국가정보원

2003년도 대테러 학술세미나

21C 새로운 테러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SAf1.9

한국공안행정학회

2003년도 대테러 학술세미나

21C 새로운 테러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開 會 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충남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학술세미나와 관련하여 고명하신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실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저희 한국공안행정학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와 같이 훌륭한 시설을 갖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국가정보원 당국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학계와 실무계의 공동 관심사인 **'21세기 새로운 테러 위협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제발표를 위하여 연구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홍순남 교수님,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김태진 박사님, 중앙대학교의 제성호 교수님,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손동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과 사회를 맡아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오늘 모처럼 마련한 이 귀중한 시간에, 열띤 토론의 장이 되어 학계나 실무계에서 종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학술세미나가 우리나라 대테러 연구기반을 넓히고, 중장기 대테러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축전과 화환을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0. 24.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김충남

21C 새로운 테러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목 차

1. 이슬람과 테러리즘(홍순남) ——— 1

2. 국제테러조직 동향과 대응책(김태진) ——— 43

3. 미국의 반테러법 실천과 한국의 입법적 대응방향(제성호) ——— 79

4. 독일의 테러대책법과 활동방향(손동권) ——— 123

이슬람과 테러리즘

홍순남 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 교수

< 목 차 >

Ⅰ. 서론(중동테러리즘과 이슬람)

Ⅱ.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이슬람
1. 뉴욕 9.11테러와 이슬람
2.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알 카에다

Ⅲ. 팔레스타인 봉기와 테러리즘
1.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정책과 표적암살정책
2. 팔레스타인 민족봉기와 테러리즘환경

Ⅳ. 이라크전쟁과 이슬람정체성
1. 이라크전쟁과 저항환경
2. 이슬람의 정체성

Ⅴ. 결론(중동테러리즘환경의 변화)

I. 서론(중동테러리즘과 이슬람)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이슬람과 아랍인을 동시에 의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이슬람의 정체성과 중동정치의 정통성과 합리성을 기독교 시각에 보는 경계심과 아랍인이나 무슬림 시각에서 보는 저항성의 정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아랍 테러전쟁은 아랍인들을 이슬람의 정체성으로 단결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중동테러리즘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전제조건은 이슬람의 정체성 성립과정과 중동의 정치환경을 분석하여야만 한다. 또한 아랍인들은 테러리즘을 이교도에 대한 저항감에서 나타나는 자연발생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중동의 테러리즘을 이해할 수 없으며 테러를 예방할 수도 없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리즘을 환경을 분석하는 비교분석적 접근방법으로 역사와 지정학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테러리즘의 기원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하고 있다. 테러의 주체와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암살(assassin)이라는 어원은 중세 십자군 운동시대에 이슬람과격단체가 암살자들에게 대마초의 일종인 하쉬쉬(Hashish)를 복용시킨 데서 유래되었다. 이로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슬람문화권이 테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중동에서 아랍과 유대인의 민족갈등은 약자인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이 테러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20년간은 팔레스타인인의 하이재킹시대였다. PLO의 한 조직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은 1967년 6일전쟁 이후에 조직되었지만 1968년에서 1970년까지 단 3년 만에 조지 하바시의 지도 하에 20여대의 항공기를 하이재킹하였다. 1970년 9월 한달 동안에만 4대의 항공기를 하이재킹하였다. 이로서 팔레스타인조직은 테러조직의 집합체로 알려졌었다. 특히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테러의 특징은 자살폭탄테러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테러의 특징을 보여왔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여 PLO를 레바논에서 추방하자 베

이루트를 중심으로 한 자살폭탄테러는 레바논에 주둔하고 미국중심의 다국적군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1990년초 냉전체제의 종언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걸프전쟁은 중동 테러리즘 환경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 전쟁은 중동을 이슬람원리주의환경으로 만들었다. 무슬림들은 반미감정의 표현으로 미국을 테러공격의 목표로 삼고 성전을 주장하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였다 귀국한 아랍지원병들이 미국의 다국적 정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정부를 공격하는 이슬람원리주의환경을 만들었다. 이들 아랍 아프간들은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관역할을 하였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내전으로 신음하는 알제리는 이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이다.

걸프전쟁의 결과로 미군이 이슬람의 성지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장기 주둔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문화에서는 성지에 기독교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슬람의 일차적인 적이 기독교국가인 미국이 된 것이다.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 폭탄폭발사건과 소말리아의 미군에 대한 테러공격사건, 1995년 사우디 아라비아주재 미 군사시설물에 대한 폭탄테러와 1998년 케냐-탄자니아 미대사관 차량폭탄테러사건, 2000년 예멘의 아덴항에 정박 중이었던 미 해군함정에 대한 폭탄테러사건 등은 미국이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공격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증명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조직이 저지른 2001년 뉴욕의 9.11테러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이 테러사건으로 분노한 미국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미국의 힘의 정치는 9.11테러의 응징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으며 예방전쟁차원으로 이라크전쟁(2003년 3월20일-5월1일)을 일으켰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9.11테러사건을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처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이해의 충돌이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이슬람은 테러의 온상이 되었다. 이는 오랜 역사경험의 충돌이며 이는 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힘의 정치는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크고 작은 두 거인의 사격장이 된 느낌이다. 지금의 아랍인들은 과거 6일전쟁의 패배로 좌절감을 가졌던 것보다도 더 비참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테러리즘으로 경고되고 있다.

미국은 테러예방을 위하여 전 이라크국민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국민을 경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민족봉기와 이라크국민의 반미감정은 이슬람의 테러환경이 되고 있다. 전 세계의 이슬람권이 약자의 문화로서 저항하고 있는 현실도 이슬람이 무력을 이용하여 저항하는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보여지고 있다. 발칸반도의 코소보사건과 러시아의 체첸저항은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다. 2002년 10월의 체첸인의 모스크바 극장인질사건으로 체첸인의 저항운동은 테러리즘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테러전쟁선언은 강대국들의 소수민족탄압을 합리화시켰다. 중국도 티베트의 문제를 자국정치, 사회문제로 만들었다. 정의와 인권문제는 대테러전쟁으로 빛을 잃었다.

9.11테러는 인간이 전쟁이 아닌 테러공격으로 문명사회에 공포와 충격을 주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테러가 문명사회를 공격하는 새로운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되었다. 미국과 UN은 반문명적인 테러범죄를 국제사회의 공조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 목소리로 협력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은 테러리스트를 처벌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기관이 없다. 항공기테러에 대한 특별한 국제적인 협약은 동경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등 12개나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조약들이 있다. 또한 유럽협약이나 아랍협약 등이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이해가 다양하여 아직도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포괄적 다자조약은 없다.

미국과 UN은 안보리 결의안 1368호(2003. 9.12)를 통하여 이번 9.11테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여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테러에 대하여 개념정의를 내리는 데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미 일리노이 국제법교수인 프랜시스 앤서 교수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다.[1)]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무고한 제3자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불구자로 만들며 협박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죠나단 테러연구소는 1979년에 이미 정의를 내린 바 있다.[2)]그러나 테러리스트와 자유투사라는 용어도 보는 시각에 따라 설명되는 상대적 용어이기 때문에 테러범과 테러리즘의 정의는 유동적이다. 이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점에서도 연유된다. 중동테러리즘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는 시각이 있으며 아랍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조금은 아랍인을 이해하는 EU의 시각도 있다. 아랍인들은 이슬람과격단체들의 테러행위를 형제들의 해방운동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반문명적인 테러리즘도 이슬람이 기독교와 대칭적이라는 정치환경에서 무슬림들은 이를 성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동국가들은 국가정책과 국민감정이 서로 다른 이중적인 가치관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테러공격의 목표가 되어 왔다. 주 미국 칠레 문화원폭파사건(83.10.29), 주 칠레 미문화원폭발사건(83.11.2), 칠레 미국계회사건물폭파사건(83.11.15), 바스크의 반미폭탄테러사건(83.12.2), 주 볼리비아 미 대사관저 폭파기도사건(84.3.3), 미 항공기 쿠바납치사건(84.3.28), 아킬레 라우로선박피납사건(85.10), 로마-빈 공항 총격사건(85.12) TWA폭파사건(86.4), 서독 디스코텍폭발사건(86.4) 등 미국을 공격하는 테러가 계속되어 왔다. 1986년 4월 가다피가 지원하는 PLO의 아부 니달이 대미테러로 TWA항공기를 폭파하자 미국은 여명작전명으로 가다피를 제거하기 위하여 리비아를 공격한 적도 있다.

소련은 아랍의 정치적 대부였으나 1985년 10월 베이루트에서 소련 대사관직원 4명이 시아무슬림들에게 납치되어 3일 후에 인질 중 1명이 살해되기도 하였다. 소련은 KGB의 특공대작전으로 시아파 게릴라

1) 이장희, "테러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조명과 그 대응방안,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 4월. p.4.
2) 위의 책, p.6.

12명을 납치하여 소련 외교관 인질을 석방하는 대테러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라크도 테러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1986년 12월 바그다드에서 암만으로 가던 이라크항공사 소속여객기 737기가 사우디 상공에서 공중폭발하여 107명이 사망하였다. 한국도 1987년 11월 미얀마의 안다만상공에서 KAL858기가 공중폭발하여 115명이 희생되었다. 이와 같이 테러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테러는 저강도전쟁이며 그 효과는 정치적으로 크기 때문에 언제나 이용될 수 있는 범죄이다. 중동은 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의 대칭되는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언제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지금의 이라크전쟁 후 중동의 이슬람원리주의환경은 과거 걸프전쟁보다도 더 크며 반미감정 또한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점령군에게 가졌던 감정보다 더 크다.

Ⅱ.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이슬람

중동은 이슬람사회이며 중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는 이슬람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는 거시적으로는 이슬람원리주의이며 미시적으로는 정치이익이며 권력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동에는 보이지 않는 2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는 아랍의 대의로 정치문제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저항운동인 인티화다 운동의 테러리즘환경이며 두 번째는 이슬람원리주의의 테러리즘환경이다. 1991년의 걸프전쟁은 중동에서는 하나의 신질서를 만드는 실험전쟁이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은 냉전체제붕괴 후 신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위험한 전쟁게임이었다.

그러나 걸프전쟁을 이끌어 온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사우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걸프지역에 군대를 장기간 주둔하여 석유안보를 지키고자 하였다.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미군주둔이 이슬람문명의 정신적인 침략으로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 문명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로서 미국의 다국적군 정책을 지지한 국가들은 이슬람원리주의로 무장한 반정부세력들의 테러공격을 받아 오고 있다. 마치 과거 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환경처럼 정부를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원리주의 환경은 아랍인들의 감정적 지지를 받으면서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과격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이름으로 성전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정책은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1993년 오슬로협정으로 팔레스타인의 준군사조직인 게릴라조직이 해체된 것이다. 팔레스타인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생적인 조직인 하마스 또는 이슬람지하드 등은 민족봉기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테러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하마스나 이슬람지하드는 과거 팔레스타인 조직들이 국제적으로 테러행위를 한 것처럼 국제테러리즘환경의 주역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투쟁은 준 전쟁상태로 내란과 같은 국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슬람원리주의조직의 테러활동은 이스라엘보다는 미국을 적으로 보고 테러공격을 하고 있다. 1993년 2월 뉴욕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 폭탄폭발사건은 이미 2001년의 같은 건물에 대한 테러공격을 테러범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지시키는 사건이었다.[3]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내의 미군에 대한 테러공격은 미국이 이슬람의 적이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1995년 11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국-사우디 합동군사훈련소건물 앞에서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하여 미군 5명과 인도군 2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하였다. 다음 해인 1996년 6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다란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에서 차량폭탄테러로 미군 19명이 사망하고 320여명이 부상하였다. 이 사건은 1995년

3) 1993년 람지 유세프(Ramzi Ahmed Yousef)와 압둘 라흐만 야신(Adul Rahman Yasin) 등의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이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을 렌트 카에 폭발을 실어 폭발시킨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상이 부상을 하였다. 1995년에 유세프는 파키스탄에서 체포되어 미국에서 유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야신은 현상금이 5,000,000달러가 걸려 있다. 홍순남, 국제정치와 중동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22-2호, p.87-88, 또는 http://www.terrorismreporter.com/world-trade-center-bombing.html 참조.

미 군사시설물에 대한 혐의자로 체포된 이슬람급진주의자 4명이 한 달 전에 교수형을 당한데 대한 보복테러로 알려졌다.[4]

중동에서 미군에 대한 테러는 1987년 10월 베이루트의 미해병대사령부에 대한 차량폭탄테러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미군 200여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다국적군으로 참여하였던 프랑스군부대도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공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프랑스군 4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하였다.

미군에 대한 테러공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물은 오사마 빈 라덴이다. 그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미 대사관이나 미 군사시설물이 테러공격의 목표가 된다고 이미 1993년에서 1996년 사이에 여러 번 경고한바 있다. 이와 같은 오사마 빈 라덴의 경고와 미국에 대한 일련의 테러공격은 1983년 베이루트에서 미 해병대사령부 자살폭탄테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미국을 테러공격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걸프전쟁 후 이슬람의 신성한 성지에 기독교군대인 미군이 장기주둔하고 있는 것을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의 패배와 굴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9.11 테러리즘환경은 미국인들에게 이슬람을 테러리즘환경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9.11테러는 걸프전쟁의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슬람은 반테러리즘의 목표가 되었다. 이는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어 이라크와 이스라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테러와 이슬람을 동질관계로 보는 단순논리가 아랍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1. 뉴욕 9.11테러와 이슬람

뉴욕의 9.11테러가 일어나기 3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미대사관에 대한 알 카에다의 공격이 있었다. 1998년 8월 7일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동시에 미 대관건물이 폭탄테러공격으로 12명의 미대사관 직원과 가족을 포함하여 32명의 케냐 현지직원과 8명의 탄자니아 현지직원 등

4) 동아일보, 1996년 6월 27일자 참조.

52명이 사망하였다. 실제 사망자수는 총 224명이며 부상자수는 무려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테러사건이었다.[5] 이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테러의 암시 같은 사건이었다.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폭탄테러로 이미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은 테러조직의 공격목표로 설정된 상황이다. 더욱이 1995년 4월 걸프전 참전용사인 극단주의자 티모시 맥베이가 미 오클라호마 시 연방건물을 폭파하여 168명을 희생시킨 사건도 테러범들에게는 폭탄테러라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상징적인 건물을 폭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한 사건이기도 하다. 미국은 1993년 뉴욕 세계무역 지하주차장폭탄테러와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대사관폭탄테러사건이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이 일으킨 사건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과 수단정부가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분석한 FBI의 정보에 따라 수단의 엘시파 제약회사의 화학공장과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 캠프가 있는 카불 동남쪽 약 64km에 위치한 호우스트(Khowst)지역의 빈 라덴의 훈련캠프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단의 엘시파 화학공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경가스를 제조하는 화학공장이 아니라 제약공장이었다.

아랍연맹의 22개 회원국가들은 미국의 미사일공격을 침략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안보리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 테러응징을 아랍국가들은 이슬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러리즘환경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테러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 테러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는 테러와의 타협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면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테러리즘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FBI는 1996년 6월 팔레스타인 테러

5) 홍순남, 케냐-탄자니아의 미대사관 폭탄테러사건과 중동테러리즘, 대 테러연구논총, 제 22집(서울: 경찰청, 1999), pp.304-307.

범인 모하메드 라시드(Mohammed Rashid)를 체포하여 미국법정에 세웠다. 라시드는 1985년 로마에서 아테네로 가던 TWA항공기를 공중 납치하여 미국인 승객 4명을 살해한 용의자이다. 라시드는 1988년 그리스에서 체포되었으나 1996년에 석방되었지만 미국 FBI가 끈질긴 추적 끝에 그리스에서 석방하자마자 그를 다시 이집트에서 체포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집트와 11년 간 테러범을 인도하기 위한 협상을 끈질기게 하여 1985년 이집트 항공기 테러범인 모하메드 알리 레자크의 신병을 나이제리아에서 인도 받아 미국법정에 세워 무기형을 받도록 하였다. 알리 레자크는 아테네에서 카이로로 가던 이집트 항공기(648기)인 보잉 737을 공중 납치하여 미국인 1명을 포함하여 60명를 사망하게 한 테러사건의 용의자이다.

미국은 테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원칙을 테러범들에게 알리는 것이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983년 16명이 숨진 베이루트의 미대사관 자살폭탄테러사건의 배후인물이 헤즈 볼라 당의 이마드 머그니야를 FBI는 범인으로 밝혔으며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12년 후인 1995년 이마드 머그니야가 탄 항공기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중간 기착한다는 정보를 얻어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당국은 골치 아픈 이슬람권내의 테러환경을 피하기 위하여 머그니야가 합승한 항공기의 착륙을 허가하지 않아 다시 베이루트로 회항하여 그를 체포하는 기회를 놓쳤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이 테러를 자국민에 대한 테러범죄로 이들을 범죄인으로 인정하는 반면, 아랍국가들은 이들을 팔레스타인의 대 이스라엘 민족 투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을 체포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국민감정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럽에서 아랍인 이민이 3백만 명으로 가장 많은 독일도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테러범들을 단순하게 미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없는 속사정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독일이 중동의 테러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도 같은 상황이다.

1985년 TWA 847기 공중납치사건에서 미국인 승객 한 명을 살해한

헤즈볼라당의 용의자 4명을 독일당국이 체포하였지만 미국의 범인신병인도를 거절하였으며 독일법정에 이들을 세웠다.[6] 그러나 1988년 미 팬암 항공기폭파 사건인 로커비 사건의 용의자인 리비아인 2명을 리비아가 10년만이 1988년 8월말 제3세계인 네델란드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범인을 인도한 것은 미국의 대 테러정책의 성공사례이다.

미국은 테러에 대한 응징과 보복정책은 1986년 4월 리비아에 대한 보복공습작전과 2001년 10월의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1985년 로마와 빈 공항총격사건과 1986년 4월 서독 디스코텍 클럽의 폭탄테러사건에 대하여 리비아가 책임져야 할 테러지원국가로 국제사회는 리비아를 제재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응징을 한 것이 리비아공습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전쟁은 2001년 뉴욕 9.11테러에 대한 탈레반 정권과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에 대한 전면전쟁이었다. 2003년 9월 리비아의 까다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로커비사건, 서독 디스코 텍사건, 이미 보상한 프랑스 항공기피납사건 등에 거액을 보상한다는 협약으로 정치적으로 굴복하였다. 이는 이라크전쟁에 대한 미국의 힘의 정치와 유엔의 제재조치에 대한 굴복이다. 이로서 유엔은 리비아의 제재조치를 해제하였다.

항공기를 공중 납치하여 폭파시키는 테러는 여러 번 있었으나 뉴욕 9.11테러처럼 항공기자체를 테러공격무기인 화약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 세계는 항공기 안전관리문제로 관광 및 항공기 산업이 타격을 받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가상적 테러공격의 목표가 되고 있는 미국의 항공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1998년 알제리 이슬람무장세력들이 에어 프랑스 A300기종의 8969기를 하이재킹하였을 때는 폭약을 항공기에 싣고 파리상공에서 폭파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졌지 테러범들이 항공기자체를 무기로 사용할 줄은 몰랐었다. 이제 뉴욕 9.11테러사건으로 항공기납치폭파에서 특정건물을 공격하는 새로운 테러기술이 알려져서 전 세계는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테러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서로 고통을 당하는

6) 동아일보, 1998년 8월 10일, 국제면 참조.

상황이 되었다.

9.11테러사건은 아침일과를 시작하는 오전시간에 4대의 항공기를 하이재킹하여 건물에 폭파시킨 사건으로 불특정다수의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테러사건이다. 이 사건은 밀레니엄시대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하게 하였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 사이에 납치한 4대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동시에 공격하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붕괴시키고 펜타곤 건물일부를 파괴하여 5,000여명의 시민을 희생시킨 대 참사를 말한다. 이 테러사건은 알 카에다의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이 4대의 민간항공기를 동시에 공중납치(Hijacking)하면서 시작되었다.[7] 미국에서 같은 시간에 공중 납치된 4대의 항공기가 워싱턴을 향하여 돌진한 시간일지는 다음과 같다.

1-오전 7시 59분 92명의 승객을 태우고 보스턴에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던 아메리칸 항공소속의 AA11편이 이륙 후 46분만인 오전 8시 45분에 뉴욕무역센터의 북쪽 건물에 충돌하였으며 공격받은 지 80분쯤 후이며 남쪽건물이 붕괴된 후인 오전 10시에 이 건물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2-오전 8시 14분 65명의 승객을 태우고 보스턴에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소속 UA175편이 이륙 후 49분만인 오전 9시 3분에 뉴욕무역센터의 남쪽건물에 충돌하였다. 이 건물은 북쪽건물보다 후에 공격을 받았으나 공격받은 지 50분도 않은 오전 9시50분에 붕괴되었다.

3-오전 8시 01분 45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유나이티드항공 UA93편이 남쪽 건물이 붕괴 된지 10분 후 기내에서 승객들의 저항으로 오전 10시에 피츠버그 동남쪽에 추락하였다.

4-오전 9시 64명의 승객을 태우고 워싱턴에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던 아메리칸 항공소속 AA77편이 오전 9시 40분에 워싱턴의 펜타곤건물에 자살 충돌하였다.

7) C:₩WORK₩엔싸이버 백과검색 - 미국 대폭발테러사건.htm참조

5-뉴욕 무역센터빌딩붕괴의 충격으로 약 7시간 후인 오후 5시 25분에 47층 부속건물인 제7건물이 붕괴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266명이 사망하고 워싱턴 국방부건물 일부붕괴로 125명이 실종 또는 사망하였으며 뉴욕세계무역센터건물붕괴로 4,600-5,900명 등이 실종 또는 사망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명 피해만도 5,000여 명에 달한다.

경제적인 피해도 세계무역센터 건물 11억 달러(1조 4300억 원), 테러 응징을 위한 긴급 지출액 400억 달러(약 52조 원), 재난극복 연방원조액 111억 달러(약 52조 원)등 520억 달러이상이 되며 그 외에 각종 경제활동이나 재산상 피해를 더하면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미국의 놀라운 잠재력은 세계금융심장부가 테러에 파괴되었으나 세계가 우려하였던 월 스트리트가의 경제활동이 곧 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9월 12일 상· 하의원 합동연설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뉴욕 9.11참사를 미국에 대한 전쟁도발로 선포하였다. 이것이 아프간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2.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알 카에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은 1986년 4월 여명작전이였던 리비아의 공습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분석과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 초 동유럽의 붕괴로 이데올로기의 양극체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혼란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정치실험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아버지 부시행정부의 이라크공격으로 시작하였다. 이 전쟁으로 국제사회는 모든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새로운 질서환경이 국제정치의 메카니즘으로 정착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발칸반도의 인종과 종교문화의 갈등은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전하여 복잡한 유럽의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다자간 정책은 경제협력관계인 WTO체제를 만들었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국익이 우선적인 점에 불만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투쟁하

고 있는 중동은 걸프전 이후 이슬람원리주의환경에서 아랍인들은 미국을 이스라엘과 같은 적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마치 과거 대형인 소련이 형제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과 같은 감정에서 미국을 사우디 아라비아 성지를 정복한 기독교군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언제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은 미국을 테러공격의 목표로 정하였다.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폭탄테러는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고한 테러이다. 같은 해 소말리아주둔 미군공격사건이나 1995년과 1996년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군에 대한 테러공격, 1999년 예멘의 아덴 항에 정박중인 미 해군 프리킷드 함에 대한 폭탄보트 공격 등이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인물로 FBI는 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은 테러공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래전부터 빈 라덴에게 돌리고 있었다. 따라서 그를 비호하고 있는 오마르의 탈레반 정권과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은 국제테러리즘의 온상으로 미국의 응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94년에 조직을 만들어 1996년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원리주의의 탈레반 정권은 중앙아시아의 정치안정을 위하여 위험한 요인으로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빈 라덴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이미 1982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출하여 도로와 여러 시설물을 건설하여 왔으며 이를 지원한 것은 소련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미국CIA이다. 이제 아프가니스탄 반군을 지원하였던 미국은 소련이 떠난 이곳에서 탈레반 정부군과 알 카에다 조직과 전쟁 아닌 전쟁을 한 것이다. 미국이 도왔던 국가를 미국은 다시 응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도 분석되고 있다. 즉 유럽의 중동전문가들은 미국이 카자흐스탄국가 등 중앙아시아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등 지하부존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기득권다툼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국가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의 중동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다국적군 전략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였다. 이번 전쟁은 걸프전처럼 미군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된 전쟁이 아니다. 미군은 소규모 특수정예부대를 투입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북부 아프가니스탄동맹군이라는 반군연합군을 이용하여 수행한 전쟁이다. 따라서 미군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던 전쟁으로 대규모 테러진압전쟁과 같은 성격을 보였다. 그러나 걸프지역에 정박하고 있는 미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의 공습은 엄청난 화력으로 전쟁과 같은 규모였었다.

미국은 뉴욕 9.11 대 참사가 일어난지 한달 후인 2001년 10월 7일 미국은 일방적인 공습을 시작하여 초토화된 카불 수도에 북부동맹군이 무혈 입성하였다. 탈레반 군대는 전쟁다운 싸움한번 해보지 못하고 미국이 무차별 공습을 한지 2개월 만인 12월 6일 칸다하르에서 반 탈레반 군벌 사령관인 나키블라 세력에 무기를 이양하고 항복함으로서 공식적으로 탈레반 정권은 괴멸하였다.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당시 과도정부수반으로 오마르와 그 부하들을 사면한다는 조건을 미국은 강력히 반대하였기 때문에 오마르 세력은 빈 라덴 세력과 함께 동북부지역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숨어 버렸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자존심과 성난 미국시민을 위로하는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이는 오래 동안 미국을 괴롭혀 온 테러의 온상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을 테러전쟁지역으로 택한 것이다. 1998년 케냐-탄자니아 미대사관 폭탄테러사건 때에도 아프가니스탄을 미사일로 공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뉴욕9.11 대 참사 직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적국으로 선언하고 쉽게 공격할 수 있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은 허상인 적과의 전쟁게임과 같은 것이지만 국제정치의 틀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의 결과를 평가한다면 전쟁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세력대신 반군세력 이였던 북부동맹군이 정부군이 되었을 뿐이다. 반면, 탈레반 군은 이제는 정부군이 아닌 반군으로 지하동굴에 숨어 버렸을 뿐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5개 파벌의 북부동맹군

은 서로 권력투쟁을 하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이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조직을 비호하는 국가는 아니라는 의미만이 전쟁의 의미를 크게 할 뿐이다. 영국은 미국과의 동반자로서 국제정치의 지분을 찾고 있으며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로서 국제정치의 한 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미국과 새로운 강대국관계로 발전하여 과거의 영향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이라크나 이란과 같은 지역세력균형을 미국과 연계하려 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간의 종교분쟁에서 미국의 다국적 정책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얻으려 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공격은 국제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하였다. EU나 UN은 각각 그들의 자위권조항인 EU헌장 제 5조와 UN헌장 제 51조를 확대 해석하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동의하였다. 이민국가인 미국본토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프가니스탄이 책임이 있는가는 국제법학자들의 연구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테러공격에 대한 국제 간의 무한의 합의는 당분간은 국제정치의 단극체제에서 테러리즘의 억제력이 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북한, 중남미에서는 쿠바, 중동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이라크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실험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라크의 과도통치위의 성격이 아프가니스탄의 통치위와 성격이 같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친미성향을 가진 이라크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종결된 지금 미국의 다음 테러전쟁의 공격목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존재하는 한 신경가스나 대량살상무기가 있던 없던 간에 걸프지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담 후세인은 2번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독재자이기 때문에 3번째의 전쟁도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이다. 또한 과거 여러 테러사건에 이라크와 리비아가 관계되어 온 것도 미국이 이라크를 응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걸프지역에서 이란과 세력균형을 만드는 축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아프가니스탄공격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뉴욕9.11 대 참사의 범인들 19명중 17명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도 테러 지원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관계악화는 미국이 이라크를 정치적으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과거 사우디 아라비아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미국은 중동에서 이슬람국가를 공격할 수 있었던 과거의 환경과는 다르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미국이 얻은 정치적인 전쟁수확이다. 당분간은 어느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의사를 거역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 부시대통령의 선언으로 전 세계는 테러전쟁에 참여 할 수밖에 없으며 전 세계는 테러라는 무서운 지진대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은 현재의 국제정치의 틀을 지키거나 새로운 틀을 만들 경우거나 시작은 이라크를 제재하는 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의 교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의 정치이론으로 세계평화와 안보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야시르 아라파트 행정부를 오마르의 탈레반 정권처럼 여기고 있으며 미국은 이라크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민국의 특성으로 양국의 국가이익이 국제사회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 아랍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깝고도 먼 나라일 뿐이다. 중동의 평화는 세계평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중동정치의 직접변수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에 의하여 국가와 왕정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미국의 테러전쟁은 아랍국가 또는 이슬람조직들이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랍인들에게는 미국의 이슬람에 대한 차별정책과 공격으로 느끼고 있다. 미국의 테러전쟁은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는 위험한 문명의 충격을 보이고 있다. 아랍인들은 미국 내에서 아랍인 이민자에 대한 경계심과 미 국민의 테러에 대한 분노를 미국의

이슬람에 대한 문화적 차별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아랍인들이 관계된 일은 이슬람과 관계되고 있으며 테러와 이슬람의 연계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Ⅲ. 팔레스타인 봉기와 테러리즘

팔레스타인 민족봉기는 이슬람의 원리주의환경의 간접변수이다. 미국은 중동평화를 위한 로드 맵을 다시 만들어 다시 시작하려는 중동평화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테러전쟁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가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봉기를 테러전쟁으로 선언하고 작은 테러전쟁을 하고 있다는 정치선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정책은 팔레스타인 민족과 공존한다는 기본정책까지도 과거의 분쟁환경으로 되돌려 놓았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은 이제 좌절감과 패배에서 희망을 잃고 목숨을 던지는 자살테러공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 아랍인들은 좌절과 패배감을 이슬람으로 치유하려는 종교문화이다. 결론적으로 적에 대한 성전이라는 결론적 결심은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군사보복공격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 대한 표적암살정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테러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2000년 9월 28일 아리엘 샤론이 예루살렘의 알 악사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봉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아리엘 샤론의 정권 하에서 중동평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의 민족봉기는 자살폭탄테러로 이어지는 테러리즘환경을 의미한다. 중동평화가 없는 한 중동의 테러리즘환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보장과 이스라엘의 양보가 없는 한 중동평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유럽의 도움과 보장이 없는 중동평화도 위험하다. 유럽과 중동은 역사와 문화의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정책과 표적암살정책

이스라엘의 평화노력은 이집트와 평화조약으로 수에즈운하의 안보지역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3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족이 이스라엘 국민과 공존하는 환경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하여 예민한 수에즈 지역의 긴장을 이집트와 우호적으로 풀어 나갔다. 그 대가로 이집트는 아랍세계에서 고립되었으며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동안 이집트의 역할인 아랍의 강대국입장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8] 그러나 후세인은 전쟁을 이용하여 패권주의 정책을 확대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랍세계의 수문장 역할은 세계뿐만 아니라 아랍 형제국가들까지도 경계하였었다. 이는 아랍정치의 힘의 공백을 의미한다. 조페 교수의 지역갈등과 지역강대국의 개념으로 걸프지역의 정치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전쟁을 시작하기 1년 전인 1981년 6월에 아랍세계의 큰 저항 없이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격할 수 있었다.[9] 이는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시리아 또는 이란의 군사지역을 선제공격 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전쟁에서 아랍의 강대국인 이집트가 없는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협정으로 군사적으로 위험한 전쟁환경에서 자유스러워 진 것이다. 1985년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튀니지 영공을 침해하면서 망명한 PLO 본부를 기습공격하였다. 1988년에는 튀니지에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특공대가 PLO의 2인자인 칼릴 와지르를 암살하였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이집트를 의식하지 않고 미국과 같은 힘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힘의 논리로 중동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다. 미국은 중동의 평화가 세계평화의 이슈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중동에서 미국

8) William B. Quandt, *Camp David: Peacemaking and Politics*(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6), pp.291-319.
9) EROPA,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991*(37th ed.), pp.110-111.

의 이해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랍이다.

걸프전후 미국은 냉전체제의 붕괴로 비대칭 환경에서 1991년 마드리드 협상을 통한 다자주의 원칙으로 중동의 평화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중재로 오슬로 비밀협약은 미국의 보증 하에 오슬로 협정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땅과 평화를 교환하는 중동평화원칙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제 중동의 평화는 팔레스타인의 생존권과 이스라엘의 안보문제이다. 이를 위한 원칙이 오슬로 협정정신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최종적으로 팔레스타인 인들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중동평화 협상과정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정책과 양 민족이 양보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주권문제이다. 이스라엘은 마드리드 회담에서 예루살렘을 의제로 한다면 회담 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2002년 이스라엘 대표들이 예루살렘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중재한 회담장을 떠난 적이 있다. 2003년 6월 4일 미국의 중재로 시작한 중동평화안인 로드 맵은 과거의 원칙을 지키지만 이스라엘의 전략대로 원점에서 다시 중동평화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랍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평화정책은 이라크의 혼란으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으로 덕을 본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다. 중동평화는 클린턴 행정부도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000년 7월 중동평화회담의 결렬과 아리엘 샤론 당시 노동당 당수가 알 악사 모스크를 강제로 방문하면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민족봉기는 중동평화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중동평화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오슬로 협정의 기본정신과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정책을 분석하여야 한다.

중동평화는 유엔 결의안 242호와 338호의 원칙 하에서 평화의 틀이 만들어 져야 한다. 이는 중동평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마드리드 중동평화회담은 평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993년 오슬로 협정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논의하였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수립을 위한 원칙으로 5년 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3단계로 영토를

반환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협정이다. 1994년 카이로 협정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 틀을 만들었다. 1995년 9월 28일 팔레스타인 자치행정부에 아랍점령지를 반환하는 임시협정은 극우 정착민에 의하여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수상이 암살되는 상황에서 체결된 값진 협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네탄냐후 총리는 오슬로 협정으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였다는 입장으로 중동평화를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네탄냐후 총리는 오슬로 정신에 따라 1998년과 1999년에 중동평화 이행협정을 위한 와이 리버협약(Wye River Memorandum) I, II와 샤롬 엘 셰이크 협약을 계속하여 중동평화 환경을 유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정책으로 중동협상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차별정책으로 절망과 패배감으로 좌절하여 목숨을 버리는 테러공격을 유일한 저항방법으로 다시 택하였다. 이를 이스라엘측은 안보의 필요성으로 설명하고 팔레스타인측은 민족저항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10]

1999년 초부터 집권한 바라크 총리는 영토와 평화 교환원칙에서 영토와 안보 교환 원칙으로 협상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2000년 5월 바라크 총리는 18년간 점령하였던 레바논 남부지역(20%)에서 철수하면서 레바논 내 베카 계곡에 주둔하고 있는 35,000명의 시리아군의 철수와 아랍 점령지인 골란고원문제를 시리아와 협상하여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과 국경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하페즈 아사드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서 시리아와의 협상계획은 실패하였다. 1994년 12월 이스라엘은 이미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오슬로 협정은 1993년 9월 13일 미국과 러시아의 보장하에 이스라엘과 PLO당사국들이 처음으로 직접 체결한 기본조약으로 오슬로 정신이라고도 부른다. 이 협정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틀로 향후 5년간 과도기의 팔레스타인 자치행정부를 가자지구와 예리코(Jericho)시에 세워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복지, 조

10) Eric Silver, *The Independent*, October 6, 2000.

세, 관광 등을 책임지며 팔레스타인 경찰을 창설하여 그 지역 치안을 담당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다.[11]

오슬로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은 서로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아랍국가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PLO가 이스라엘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실체를 인정하는 문제에 정치적으로 자유스럽게 되었다. 특히 1995년 9월 2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오슬로II 협정은 웨스트 뱅크와 가자지구에 대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 o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으로 팔레스타인 자치행정지역 확대협정이었다.[12]

가자지구와 웨스트 뱅크지역을 이스라엘은 직접통치하는 C지역, 팔레스타인 자치행정부가 직접통치하는 A지역, 팔레스타인 행정구역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행정부와 공동으로 통치하는 B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B지역 중 일부 그린 지역 또는 자연보호지역을 설정하여 건축을 제한하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측에 반환하는 영토는 모두 C지역에서 시작한다.

1단계는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C지역의 13%을 팔레스타인 측에 반환하는 것이다. 그 중 공동관리지역이 12%가 B지역이며 오직 1%만이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A지역이다. 양측이 공동 관리하는 12%의 B지역 중 3%는 자연보호지역인 그린 지역으로 양국의 특별한 공동관리 지역으로 만들었다. 추후 14.2%의 B지역을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관리하는 A지역으로 반환하며 5%의 C지역을 공동관리의 B지역으로 반환하는 것이 2차 단계이다.

1995년 11월 15일 이스라엘은 2%의 B지역을 A지역으로 반환하였으며 3%의 C지역을 B지역으로 반환하였다. 이제 팔레스타인의 행정지역인 A지역은 2%, 공동관리지역인 B지역은 26.0%, 이스라엘의 정착촌,

11) David Makovsky, *Making Peace with the PLO : the Rabin Government's Road to the Oslo Accord(Boulder*, San Francisco and Oxford: Westview Press, 1995), pp.167-234.

12) Noam Chomsky, *World Orders Old and Ne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210-213.

자원, 전략적 지역인 C지역은 72.0%으로서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행정지역은 아랍점령지인 이 지역의 22%의 2%뿐이었다.[13]

와이 리버 협약I은 3단계의 반환으로 12주 내에 이스라엘이 관리하는 C지역의1%는 팔레스타인 관리지역인 A지역으로, 5%는 공동관리인 B지역으로 반환하며 B지역의 7.1%을 팔레스타인의 A지역으로 반환한다는 단계적 반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와이 리버 협약 등의 내용으로 잠정협정이행을 위한 협약이다.

1998년 협약한 오슬로II 협정인 와이 리버 협약은 10월 16일-23일까지 8일간 협상으로 웨스트 뱅크의 이스라엘 관리지역인 C지역 2%가 공동관리지역인 B지역으로 반환되었으며 B지역의 7.1%가 팔레스타인 관리지역인 A지역으로 반환되었다. 실제로 이양된 것은 11월 20일이다. 이 협약으로 팔레스타인 관리지역으로 웨스트 뱅크는 9.1%, 공동관리지역인 B지역은 웨스트 뱅크의 20.9%, 이스라엘의 관리지역인 웨스트 뱅크의 C지역은 70%가 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웨스트 뱅크지역을 90.9%나 통치하고 있다.[14]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보라는 이유로 정착촌 지역을 팔레스타인 행정부에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착촌을 중심으로 아랍 점령지에서 건설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 이 협약이후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17개의 정착촌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으며 15개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였다. 이스라엘의 안보정책은 정착촌을 또 다른 검문소역할을 하는 군사기지로 이용하고 있다.[15]

오슬로 협정이후 와이 리버 협약 등을 통하여 영토 반환과 팔레스타인 최종지위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동평화협상은 다시

13) http://www.mfa.gov.il/mfa/go.asp?MFAH07o10

14) 홍미정, "이스라엘의 정착촌정책,"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pp.77-78, p.87;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이스라엘 정착민의 연 평균 증가율은 7.92%였다. 그 중 4%는 자연증가분이다. 2000년 현재 유대 정착민들은 이스라엘 내 유대인의 8%정도이며, 이 중 동 예루살렘 정착민이 ⅓을 점유한다. 웨스트 뱅크내의 이스라엘 정착민은 주민의 9-10%을 점유하고 있다.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 정착민이 주민의 0.6%을 점유하고 있다.

15) Ian Lustic, *Arabs in the Jewish State: Israel's Control of a National Minority*, University of Texas, Austin, 1980, pp.67-69.

원점으로 되돌아 간 상태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여 건설하겠다는 아랍의 주장은 가장 풀기 힘든 문제이다. 기독교국가들의 열망과 2000년이 지나서야 찾은 예루살렘의 수문장 역할을 이스라엘은 다시 잃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국제여론은 예루살렘을 분할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또한 다시 아랍인이 관리하는 것도 원하지 안는다.

중동평화 잠정협정 이행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서로 마주앉아서 당사자들의 문제를 협상한 것은 중동평화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이스라엘의 안보, 테러, 자유통행(헤브론과 가자지구), 구속된 죄수들의 석방 등을 협상할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들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동평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보장과 이스라엘의 양보가 중요한 관건이다.[16]

팔레스타인자치지역은 아랍인들이 반환된 영토 안에서만 생활하여야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통제 하나로서 국내문제였던 통행허가가 국가 간의 국제문제가 된 것이다. 이제 팔레스타인 인들은 이스라엘과 정착촌내의 일용직이나 막노동자로서 생활하는 2등 국민의 생활이 주요 경제생활이다.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3지역의 검문소로 분류되어 이동의 자유를 잃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웨스트 뱅크와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정착촌과 검문소로 이리 저리 토막난 꼴이 되었다. 이런 사정에서 팔레스타인 인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좌절 속에서 투쟁만이 민족이 존재하는 의미라고 믿고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17] 아리엘 샤론이 무슬림의 성지인 알 악사 모스크를 방문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주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봉기는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저항이다.

자원이 없는 초미니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로 분리된 지리적 환경으로 가자지구는 예루살렘의 경제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웨

16) Ruth Sinai, *Haaretz*, December 20, 2000.

17) Noam Chomsky, *Fateful Triangle: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the Palestinians*, 유달승옮김, 『숙명의 트라이앵글I, II』(서울: E이후, 2001년), 참조.

스트 뱅크지역은 요르단의 경제권과 연결 되어 있으며 예루살렘 경제권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는 팔레스타인이 상이한 2개의 경제권으로 구성된 지리적 여건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내의 잠재적 갈등요인이기도 하다.

2. 팔레스타인 민족봉기와 테러리즘 환경

팔레스타인의 민족봉기는 이 지역을 테러환경으로 만들었다. 자살테러의 인적자원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으며 이제는 여성도 자살폭탄테러를 하고 있다. 2003년 10월4일 법학도인 팔레스타인여성이 하이파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일으켜 20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날인 10월 5일 이스라엘은 시리아내 하마스와 지하드 군사훈련캠프를 공습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팔레스타인민족의 봉기는 피의 보복으로 이스라엘국민과 팔레스타인민족의 분노로 계속되는 테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의 사건은 제 2차 팔레스타인 인티화다에서 시작되었다. 즉 2000년 9월 28일 아리엘 샤론 리쿠르당 당수가 아랍인들의 분노 속에 이슬람의 성지인 알 악사 모스크를 의도적으로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인티화다는 2개월 전인 7월11일 위싱턴 중동평화가 결렬되면서 시작되었다. 아리엘 샤론은 중동평화협정을 이행하는 실무협정을 체결한 9월 28일을 상징적으로 알 악사 모스크 방문일로 정하여 예루살렘의 성지를 포함하여 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주권지역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였다. 이 방문으로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리쿠드당은 이스라엘 총선에서 바라크 총리의 노동당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샤론의 알 악사 방문사건은 팔레스타인 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상징적으로 충격을 받은 정치사건이었다.[18]

18) Shibley Telhami, 'From Camp David to Wye: Changing Assumptions in Arab-Israeli negotiations,' *The Middle East Journal*, Vol.53, No.3, Summer 1999, pp.17-18.

더욱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2일 후인 9월 30일 가자지구의 네차림(Netzarim) 정착촌 부근에서 아버지와 외출하였던 12살짜리 어린이인 무함마드 라미 알 두라(Muhammed Rami al-Dura) 소년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희생된 사건이다. 시위군중과 이스라엘 보안군 사이에 갇힌 아버지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TV를 통하여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아랍인과 전 세계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분노하였다.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흥분시켰으며 다시 팔레스타인인들이 봉기할 수 있는 인티화다 운동의 명분을 준 것이다.

이스라엘 보안군은 인티화다를 막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재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라파트 집무실을 포위하여 연금시키는 강경한 군사정책을 취하였다. 이로서 팔레스타인경찰까지 민중봉기에 참여하여 준전쟁상태로 발전하면서 웨스트 뱅크와 가자지구는 내전상태가 되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PLO의 급진세력인 PFLP(팔레스타인 민족해방전선),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등의 조직들은 민족의 전위부대로 자살폭탄테러와 요인암살을 하면서 민족봉기를 자극하여 왔다.[19]

이에 이스라엘 당국은 시위 진압과 안보라는 이유로 PLO지도자들을 표적암살작전을 계속하면서 아랍점령지를 재점령하여 오슬로 협정인 중동평화협정을 백지화하였다. 그러나 세계여론의 비난을 받아 왔던 이스라엘의 군사정책은 2001년 9.11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으로 새로운 명분을 찾았다. 이스라엘은 대 팔레스타인 군사정책을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같은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군사작전은 인구 15,000명의 예닌 난민촌 학살사건으로 이어져 아리엘 샤론이 국방장관이었던 1982년 레바논 난민촌 학살사건의 재판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아라파트는 다시 한 번 세계의 동정을 받는 약소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테러범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의 지도

19) Yoel Marcus, "The 'bedrock of our existence' returns," *Haaretz*, October 3, 2000.

자들을 표적암살하고 있다. 이번 팔레스타인의 인티화다로 3000여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샤론 정권의 무자비한 군사보복은 "눈에는 눈(Auge Zum Auge, Zahn Zum Zahn)" 이라는 모세의 등벌법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법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피에는 피"라는 이 무서운 복수의 감정은 유목민족의 전통적인 율법이다. 2001년 8월 PFLP의 지도자였던 아부 알리 무스타파를 이스라엘 군이 암살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해 10월 중순 이스라엘 관광성 장관이었던 라하밤 지비 장관을 폭탄테러로 암살하였다. 아직도 샤론 총리는 지비 장관 암살 배후인물로 아라파트 수반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자살 테러 공격과 이스라엘의 강경 탄압 보복전쟁은 2001년 12월 중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모두 오슬로 협정을 포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20년 이상 힘들게 만든 중동평화환경은 사라져 버렸다.

미국은 테러응징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술적으로 승리하였지만 또다시 중동정치에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세계정치의 틀을 다시 짜려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딕 체니 부통령, 앤서니 지니 중동특사,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중동평화 중재자로 파견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설득하였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가 중동평화 협상을 다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동정치 환경이 파괴되어 미국의 1차적인 중재노력은 성과가 없었다. 2001년 말 아라파트는 미국의 중재에 대한 노력으로 15명의 테러혐의 경찰관과 180명의 하마스 조직원들을 다시 체포하였으며 40여 개의 연락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평화적인 노력을 한 적도 있다. 샤론 총리는 이번 국제사회의 테러에 대한 공조체제환경을 이용하여 PLO 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더욱 확대하였다. 미국은 이라크 무장해제를 중동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20]

아랍과 유대인의 갈등은 피의 보복전쟁인 종교문화와도 관계가 있

20) *Middle East International*, October 13, 2000, p.6.

다. 2002년 3월 27일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은 BC 13세기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끄는 유대민족이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유대인 축제일이다. 이날 네타냐의 관광호텔식당에서 일어난 테러는 2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최악의 테러였으며 테러규모보다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컸었다. 이스라엘은 이 테러사건을 이스라엘의 9.11 테러로 보고 있다. 이로써 샤론 정부는 대테러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전쟁과 같은 무차별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공격하여 점령한 것이다. 특히 4월 3일부터 시작하여 12일간이나 계속된 예닌 난민촌 학살은 국제여론이 유대인에게 호의적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감정을 바꿔 놓았다.

전 세계와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여야 한다고 설득하였지만 샤론 정권은 미국이 시작한 대테러전쟁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끝나지 않았다는 논리로 군사적 점령을 계속하여 왔었다. 4월 20일 유엔안보리의 예닌 난민촌 진상조사단 지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샤론 정부는 그 다음 날인 21일 라말라의 아라파트 집무실과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를 제외한 웨스트뱅크지역에서 테러전쟁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일방적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팔레스타인 민병대와 경찰병력 약 200여명이 피신하고 있는 예수 탄생교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세계여론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청까지도 이스라엘의 군사정책을 비난하였다.[21]

아라파트는 2001년 12월 3일부터 연금상태였으며 샤론은 그가 모로코 등으로 망명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스라엘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온건한 팔레스타인 지도자와 정치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다. 샤론은 평화보다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샤론은 아라파트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라파트는 2003년 3월 27-28일간 열린 베이루트 아랍 정상회담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지역을 강제로 점령한 것은 대테러전

21) Emma C. Murphy, "The Arab-Israeli peace process," *Critique*, Fall 1996, p.76

쟁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의 테러조직 환경을 뿌리 채 뽑겠다는 샤론 정부의 정치계산이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크다. 당장은 샤론의 군사정치로 양보한 땅들을 다시 재점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중동의 평화는 팔레스타인국가를 독립시켜야 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22]

이제 팔레스타인여성들까지도 새로이 자살특공대로 참여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좌절감은 이 지역이 앞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미국이 힘들게 만든 중동평화안인 로드맵으로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탄생될지는 의문이다.

아랍과 유엔이 힘들게 등장시킨 아라파트는 이스라엘의 대화상대이다. 팔레스타인 민족의 통치자로서 아라파트의 리더쉽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아라파트는 일생을 팔레스타인 민족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여 오면서 국내외로 리더쉽이 인정되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23] 라빈수상과 시몬 페레스장관은 아라파트의 지도력을 인정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들이다. 아라파트의 정열, 책임감, 관찰력과 국제정치경험은 그를 대신할 세대교체의 지도자가 아직은 없다.[24] 실제로는 1967년 6일 전쟁 후 나세르 이집트대통령이 아라파트를 이집트 대표로서 구 소련에 파견하면서 그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아라파트는 아랍사회로부터 리더쉽에 대한 검증을 2번씩이나 받았다. 첫번째는 1982년 레바논에서 PLO가 철수하였을 때 PLO 내의 급진세력들이 아라파트에 반기를 들고 대항하자 시리아가 통제하는 레바논지역에서 친아라파트 세력과 반대세력간에 충돌하였다. 아라파트는 이를 극복하고 지도자가 되었다. 1983년 8월13일 베이루트에 있는

22) Edward Said, *The End of the Peace Process*, Pantheon Press, New York, 2000, p.24.
23) O. Pigors, *Leadership or Domination*(Boston: Houghton Miffin co. 1953),p.12. and K. Young, *Hand Book of Social Psychology*(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Inc., 1951), p.562.
24) Max Weber, Politikals Beruf(1919), 박봉식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박영사, 1960), p.61.

PLO본부건물이 폭탄테러로 붕괴되었으며 161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하였다. 두 번째인 이번 팔레스타인 민족봉기는 아라파트가 이스라엘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였다고 비난하는 급진세력들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켰다. 이들이 주도하는 민족봉기는 유대인에 대한 자살테러공격이다.

이스라엘 군의 무차별 공격은 PLO의 경찰력뿐만 아니라 준 군사력까지 상실하였으며 핵심참모들까지도 모두 잃어 이제는 힘없는 상징적인 정치인이 되었다. 샤론 총리는 레바논전쟁을 이용하여 아라파트 군사조직을 붕괴시켰으며 이제 이번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이용하여 팔레스타인 경찰병력을 와해시켰다. 이제 아라파트는 통제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 급진세력들을 통제하여야 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테러에 대한 책임을 아라파트에 묻고 있다.

즉 아리엘 샤론 총리와 부시 대통령은 아라파트 행정수반을 정치협상 상대로 보지 않고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혐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아라파트에게 2001년 10월 17일 이스라엘 관광성장관인 레하밤 지비 장관 암살범인 4명과 이란으로부터 50톤 규모의 중화기를 팔레스타인에 반입하려 하였던 혐의자 2명 등 6명의 테러범들을 인도하여야 아라파트 집무실에 대한 포위를 풀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팔레스타인지역의 침공을 테러범 인도 및 색출에 의하여 이루어진 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이제 중동평화이슈가 아라파트의 신변보장문제로 축소된 것이다.

아라파트 행정수반은 모든 것을 잃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로 전락하였으며 이제는 정치지도자가 아닌 이스라엘 관광성장관인 지비의 암살문제에 책임을 져야하며 반쪽 지도자의 운명이 되었다. 이미 테러혐의자 6명은 팔레스타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형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의 제의이며 미국의 중재안으로 이 6명의 테러범들을 미국과 영국의 법정에 인도하라는 조건으로 아라파트의 자유를 교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아라파트는 연금상태에서는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늙은 노인

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정치생명까지도 잃었다. 샤론 총리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협상에서 군사작전으로 새로 얻은 것들을 정치협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아라파트는 정치적 명분으로 이 테러범들이 팔레스타인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중재는 이 테러범들을 팔레스타인의 예리코 시 자치지역으로 이송하여 미국과 영국의 간수들이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절충하였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아라파트를 대신할 협상상대를 무함마드 압바스 총리로 정하였지만 4개월만에 사임하였다. 그 후임인 아흐마드 쿠라이총리는 1주일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라파트가 총리와의 갈등은 권력투쟁이지만 그는 아직도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대신할 지도자가 없다. 이 점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민이다. 아라파트는 1994년 라빈과 페레스와 함께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책임과 역할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PLO자치정부 행정수반은 아직도 아라파트이다. 이는 아라파트가 아직도 팔레스타인 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도자임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재건이라는 정치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중동의 문제는 다시 팔레스타인의 최종지위문제로 국제사회에 회귀하게 될 전망이다.

Ⅳ. 이라크전쟁과 이슬람정체성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시대를 강화시켰다. 미국은 이라크문제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미국이 힘들게 마련한 정치이슈를 가지고 이해당사국들은 다시 이해관계를 재정리하여야 할 전망이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혼자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라크전쟁으로 아랍세계는 이슬람으로 재무장하는 이슬람정체성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으로 기득권을 잃은 순니 사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시아 사회는 새로운 권력투쟁으로 무질서한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라크국민은 미군에 대한 반미감정은 하나의 이슬람감정으로

재무장하고 있다. 이라크의 시아 무슬림의 등장은 이란의 시아 무슬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순니 사회인 전 아랍국가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는 정치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호메이니옹의 이슬람혁명수출과 같은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다.

1. 이라크전쟁과 저항환경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9.11이후 대테러전쟁의 연장선에서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여 왔다. 유엔의 무기사찰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 이라크를 미국은 2003년 3월 18일 48시간의 최후통첩을 사담 후세인에게 보내고 이틀후인 20일 미-영 연합군의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 전쟁은 어른과 아이의 싸움으로 끝나면서 전쟁의 명분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토미 프랭크스 대장은 이 전쟁이 적어도 120일 이상을 예상하였으나 3주만에 종결되어 의아하다고 말할 정도이다. 미-영 연합군의 전사자는 1백36명(미 1백5명, 영 31명)이며 이라크는 2천3백20명이며 부상자는 5천 1백1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세계정치질서는 유엔보다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팍스-아메리카나의 제국시대가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였으며 1천만 명 이상의 반전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미국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집트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친미 아랍국가들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였으나 큰 힘이 되지 못하였다. 아랍 산유국들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보고 석유를 이용한 자원무기정책를 포기하였다. 이는 이라크가 과거 걸프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불량국가로 확인되어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유엔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조치는 5월 22일 미국의 제안으로 해제되었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재건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국은 걸프전쟁 후 이집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축으로

하는 중동질서의 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계속하자 미국은 중동에서 직접 테러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2001년 9.11테러는 미국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대테러전쟁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중동에 두 개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안보와 석유안보이다. 과거 미국은 이 원칙의 틀에서 중동의 현상유지정책을 고수하였다. 이제 미국은 국가이익이 되지 않는 국제조약이나 정권은 탈퇴하거나 교체하는 정책으로 힘의 논리를 중시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은 반미감정을 가진 반정부 이슬람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아랍국가들로부터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예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터키도 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의회가 미국이 터키 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카타르와 쿠웨이트를 전초기지로 이용하였다. 이라크 전쟁반대로 아랍 국가들은 국민과 가까워 졌으며 국민들의 반미 감정과 반기독교 감정은 기독교에 대한 문명의 대립 환경을 만들었다.

더욱이 이라크 석유는 미국의 새로운 정치이익이 되었다. 미국은 걸프 산유국들의 안보를 지키는 것으로 세계 에너지를 통제하였으나 OPEC정책의 눈치를 살펴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래 에너지원인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인도양을 통하여 세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제는 이라크를 지배하였다. 이는 이라크와 이란의 석유와 기존의 걸프 에너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으로 세계에너지를 지배하는 미국이라는 거함이 중동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OPEC는 1일 생산량이 2천4백50만 배럴인데 비하여 1일 평균 2백만 배럴이 많은 2천7백40만 배럴을 생산하여 과잉공급을 우려하여 6월부터 2백만 배럴 감산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미국은 세계 제2위 석유매장량인 1천1백25억배럴을 가진 이라크의 석유개발권을 가지고 OPEC와 석유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교섭

력을 가지게 되었다. 소련은 석유수출국으로 배럴당 20달러 선을 유지하여야 경제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은 이라크의 석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 하에서 프랑스는 동부 마주눈 유전개발권을 얻었으며 러시아는 남부의 웨스트 쿠르나 유전과 루메일라 유전개발권을 확보하였다. 중국은 알 아흐다부 유전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강대국들은 이라크의 석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복구사업과 석유개발사업은 미-영 연합군이 한 축이며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이 또 다른 축이 되고 있다. 아랍국가들도 이라크전쟁에서 소극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반정부 감정이 정부를 공격하는 이슬람원리주의 환경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후세인의 몰락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아랍민중의 봉기로 발전하는 것을 전 아랍국가들이 경계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최근 혁신적인 정치개혁 조치를 발표하여 반미-반정부감정을 가진 국민정서를 무마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오사마 빈 라덴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며 종교 자선금으로 운영되는 오사마 빈 라덴이 세운 무슬림 신앙촌이 있는 국가이다. 9.11테러범 19중 15명이 사우디 아라비아 인이라는 사실과 소극적인 대테러정책에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장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무슬림의 반미 감정의 시너지 역할을 하였었다.

이라크전쟁은 미국과 EU(러시아+중국)의 관계에 틈을 만들었으며 UN의 위상을 손상시켰다. 이 명분 없는 전쟁을 반대한 국가들은 미국을 경계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힘센 외로운 코뿔소가 되었다. 이라크전쟁은 한 지역의 이슬람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슬람문화는 거미줄같이 서로 연결되어 신경세포처럼 형제애를 전달하고 있는 문화이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쿠르드 지역의 권력투쟁, 순니와 시아의 권력투쟁, 시아 간의 권력투쟁 등으로 이라크전 지역이 테러환경과 같은 무질서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라크는 아랍의 발칸반도정치지역이 되었다.

2. 이슬람의 정체성

이라크는 북부(쿠르드지역)와 중부의 순니 무슬림지역과 남부의 시아 무슬림지역으로 구분되는 이슬람국가이다. 사담 후세인이 철권통치는 이슬람의 정체성보다도 이라크의 세속통치이념인 바아스 이념으로 통치하였다. 따라서 이라크는 아랍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세속화된 지역이지만 지하조직으로 발전한 이슬람조직은 계속명맥을 지켜왔다. 특히 탄압받던 시아 무슬림들은 새로운 도전의 환경에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다국적군이 미국과 유럽군대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각성과 도전은 금요예배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슬람의 정체성이 새로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부 시아 지역은 이란의 영향을 받는 종교문화권으로 시아 무슬림 성지를 중심으로 하여 남부의 바스라지역까지가 시아 지역이다. 시아 무슬림은 약 1천3백만 명으로 이라크 인구의 50-55%이며 순니는 40% 정도이다. 바그다드에서 약40Km 떨어진 나자프와 조금 더 먼 케르벨라 지역과 쿠파 지역등 시아 무슬림성지를 중심으로 남단의 바스라항까지이다. 시아 무슬림들은 이란인이 아닌 아랍인이며 아랍어를 사용하나 종교적으로 이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세속정권인 공화체제였기 때문에 14년 간 나자프지역에 망명중이였던 호메이니옹의 설교는 시아 무슬림의 정신이 되었다. 매년 1백만 명 이상의 시아 무슬림들이 이 지역의 성지를 순례하는 행사는 이란과 이라크의 남부 시아 지역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힘이 되고 있다.

1978년 이라크는 시아 무슬림 성지인 나자프와 케르벨라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여명의 성직자들을 이란으로 추방하였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 무슬림 조직으로는 이라크 이슬람 혁명투쟁(IIRSI), 이라크 이슬람운동(IMI), 이라크 해방 이슬람 혁명군(IRALI)등이 있으며 가장 큰 세력은 다와(al-Da'wa)그룹이었다. 현재는 1만5천 명의 민병대를 가지고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무함마드 바크르 알하킴이 이끄는 이슬람 혁명 최고평의회(the Supreme Council for Islamic Revolution in Iraq : SCIRI)조직이다.

사담 후세인의 통치에 맞서 이슬람국가를 건설하여 성직자가 통치하는 하느님의 국가를 만들자는 이란의 이슬람원리주의 설교는 아랍국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불안요소였다. 1970년 초 시아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라크 시아 무슬림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무함마드 알 사드르 옹과 이란의 호메이니옹이 활동하고 있었다. 호메이니옹은 시아와 순니 무슬림의 종교운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하루 3번만 기도하는 시아 무슬림의 기도를 순니와 같이 5번씩 하도록 하였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은 사담 후세인의 불안 요소였으며 시아 무슬림들의 테러리즘은 국가안보문제가 되였었다. 1979년 이란 혁명을 기점으로 사담 후세인은 시아 무슬림들을 가혹하게 통치하였으며 대규모 성지순례를 정치운동인 반정부운동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금지시켰다.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알 사드르 옹은 1999년 사담 후세인에 의하여 처형당하였지만 그의 셋째 아들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시아 무슬림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1991년 시아 무슬림의 봉기는 걸프전쟁으로 약해진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하려는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촉매작용을 하였다. 호메이니가 지지하는 시아 정권이 이라크에 세워지는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 산유국의 머리 위에 폭탄을 두고 있는 형상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시아 무슬림의 봉기는 30만 명의 희생자를 냈을 뿐이며 이로서 시아 무슬림들은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불신하게 되었다. 이라크의 가장 큰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시아 무슬림의 대표가 13명이나 브리머 3세의 미군정 하에서 과도통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해외의 친미 시아 세력인 이라크 국민회의의장인 아흐메드 찰라비(58세)의 세력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라크 과도통치위는 국내에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시아 무슬림지도자들이 대부분 참여하였으며 실세인 무함마드 바크르 알하킴이나 무크타다 알 사드르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바크르 알 하킴은 8월 29일 나자프의 알리 모스크에 대한 차량폭탄테러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하였다.

사담 후세인은 북부 쿠르드 지역과 남부 시아 무슬림 지역을 중심

으로 일어나는 봉기를 진압하는데 강경정책과 유화정책을 병행하였다. 1988년 후세인은 쿠르드족의 봉기를 진압하는데 화학무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고립되었었다. 이란-이라크 전쟁휴전 후 불안한 후세인은 쿠르드 지역과 시아 무슬림 지역에 정당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개혁정책을 발표하고 이 지역의 개발사업정책도 동시에 발표하였었다. 정당정치허용은 지역자치와 정치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것이다. 바그다드 중앙정부는 누가 통치하던지 북부와 남부의 이질적인 정치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라크전쟁 후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민주주의체제를 주변아랍국가들은 국민들의 정치개혁요구를 하는 민중운동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은 6주 정도의 군정을 통하여 이라크의 치안과 질서를 확립한 후에 8월을 전후하여 이라크 과도정부를 세운다는 정책으로 군정을 실시하여 왔다. 최고 책임자는 중부사령관인 토미 프랭크스이며 그 밑에 이라크 재건 인도 지원행정처 청장인 폴 브레머(Paul Bremer)3세가 이라크재건지원활동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21일 민간인 행정요원 19명과 부임한 제이 가너(Jay Garner)청장은 3주 만인 5월12일 이라크의 무질서와 혼란에 책임을 지고 교체되었다. 그 후 부임한 전 예멘 대사인 바바라 보다인(Barbara Bodine)도 교체되었다. 이는 가너 청장과 바바라 보다인 행정관간의 개인적인 갈등관계 때문이지만 미 군정의 이라크 재건정책에 문제점으로 이라크의 민정이양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은 외교관이며 테러전문가인 폴 브레머 행정청장과 룰 아담스 부 행정청장 밑에 4명의 행정조정관(재건, 행정, 인도, 조달)을 두고 하위조직으로 북부 쿠르드 지역의 무어 행정관, 중부 순니 지역의 보다인 행정관, 남부 시아 지역의 월터스 행정관등 이라크를 3개 자치 행정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잠정행정기구에 미국인을 책임자로 하는 23부서를 두고 부서마다 4명의 이라크 자문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라크내의 미군에 대한 공격테러와 반체제지도자들간의 파벌다툼과 정치적 혼란은 미군정을 단기간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증이다. 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아 무슬림들도 국내파와 해외파의 파벌싸움을 하고 있어 이라크는 더욱 혼미한 상태이다.

미국이 소집한 제1차 반체제 지도자 40명이 참석한 나시리아 회의는 시아파의 알 하킴 지도자등이 불참하였으며 친미세력인 이라크 국민회의(INC)의장도 비난을 의식하여 대리인을 참석시켰었다. 시아 무슬림들은 반미시위를 계속하여 이라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요한 반군은 다음과 같다:

① 시아파의 최대조직인 이슬람 혁명최고평의회(SCIRI)의 무함마드 바크르 알 하킴(반미성향)

② 이라크 국민회의(Iraqi National Coference: INC)의 아흐마드 찰라비(친미성향)

③ 이라크 국내 시아파 최고지도자인 후세인 알 시스타니와 무스타다 알 사르크(친미성향)

④ 바그다드의 시아파 주요성직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야쿠비(반미성향)

⑤ 왕당파인 입헌군주운동(CMM)의 샤리프 알리 빈 알 후세인(친미성향)

⑥ 아야톨라 무하마드 알 사드르(1999년 처형된 시아파의 성직자)의 셋째 아들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 국민지도자로 급부상(반미성향)

⑦ 이라크 민주독립회의(IID)의 의장인 순니 지도자인 아드난 파차치(중도성향)

모든 시아 무슬림조직은 미군정정책을 반대하며 이라크인이 주도하는 과도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라크인이 주도하는 이라크재건을 주장하는 반체제 인사들과 유엔중심의 이라크재건을 추진하는 유럽연합(EU)등과 미국의 견해가 엇갈려서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식 방법으로 이라크 과도정부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과도정부대표로 생각하는 아흐마드 찰라비는 MIT와 시

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22년 간 영국에서 반체제 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러나 1992년 요르단의 법정에서 궐석재판으로 경제사범이 된 인물로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로 이라크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아 무슬림 지도자들은 반미적이며 아랍인들도 경계하는 인물들이다.

지난 5월22일 유엔안보리는 미국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시리아만이 기권을 하고 14개 회원국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미국도 유엔에 한 발짝 양보하여 1997년부터 이라크 국민을 위하여 인도주의로 허용한 석유와 식량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여 유엔이 계속하여 이라크 석유판매대금을 관리하게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유엔의 손상된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이라크 문제를 한시적이지만 유엔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시아 무슬림들의 시위구호는 "시아도 아니고 순니도 아니다 이슬람의 통일이다"라고 외치면서 이라크의 이슬람을 통한 단결을 외치고 있다. 미국이 적으로 보인다면 이라크는 새로운 구심점을 갖고 뭉칠 수도 있다. 이라크 국민은 13년 간 유엔의 제재조치로 고통을 받은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 국민은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인이며 기독교 군대인 미국은 후세인보다 더 미운 적이다.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미국의 중동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Ⅴ. 결론(중동테러리즘환경의 변화)

중동은 팔레스타인 봉기와 이라크재건환경으로 자살폭탄테러와 게릴라전의 테러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바그다드주재 요르단대사관 폭탄테러(03.8.7:14명 사망 50여명부상), 터키 대사관폭탄테러(03.10.14: 2명사망 6명부상), 유엔대표부건물폭탄테러(03.8.9:24명 사망 100여명부상), 유엔본부 주차장차량폭탄테러(03.9.22:2명 사망 17명부상), 스페인무관총격사건(03.10.10:무관사망) 등의 사건으로 각 국 대사관과 유엔이 새로운 테러목표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슬람 형제국

이라도 미국의 대이라크 파병정책을 지원하는 국가는 테러공격을 받고 있다. 또한 다국적군을 파병한 영국, 폴란드, 스페인군대 등도 이라크 게릴라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라크의 테러 및 게릴라조직은 순니계로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등에서 온 외부세력인 안사르 알-이슬람(알 카에다 지원), 시아계의 이맘 알리 지하드 여단과 자이슈 매흐디 조직이 잘 알려 졌다. 그 외 군소조직들이 얽혀있다. 이라크는 여러 인종, 종파, 부족주의 크고 작은 민병대들이 있으며 이는 게릴라조직으로 연계되는 이라크의 테러환경을 만들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재건사업은 테러와 게릴라전쟁으로 시작되고 있다. 시아파 강-온세력간의 충돌도 이라크의 테러환경이다. 10월 14일 케르벨라의 시아파 강-온세력 간의 충돌로 1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민족의 봉기로 이스라엘은 대테러전쟁을 하고 있다. 남부레바논 국경지역의 헤즈볼라당의 게릴라공격도 중동의 테러환경이다. 이란이 헤즈볼라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필요하다면 이란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테러지원국가로 규정하여 10월 5일 테러캠프로 의심되는 곳을 공습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란을 테러지원국가로 분류하여 미국과 같은 형식의 대테러전쟁을 선언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살테러공격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으로 이스라엘 전역이 테러환경이 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레스토랑은 자살테러공격의 목표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테러사건(02.10.12:202명 사망)과 메리어트 호텔 폭탄테러사건(03.8.5:14명 사망 149명부상) 등은 동남아국가들의 외국인에 대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공격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인적, 물적 자산이 테러공격의 목표가 되었으며 그 뿌리는 이슬람원리주의운동으로 미국의 중동정책과 관계가 있다.

이제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거치면서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아랍인들의 반미감정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과 EU 및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외로운 대테러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냉전체제이후 발칸반도 문제인 코소보, 보스니아, 중앙아시아, 체첸 등의 갈등지역도 기독교와 이슬람문명의 갈등에서 발생한 역사경험의 충돌이다.

중동은 갈등지역이며 중동평화는 아리엘 샤론 행정부 이후의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어렵게 미국의 중재로 조성한 중동의 평화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가 포기하였다. 이라크의 테러환경은 미군이 존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권력투쟁의 성격으로 강력한 통제 메카니즘이 없어 계속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테러환경도 팔레스타인인의 봉기로 계속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테러전쟁은 계속된다면 중동의 테러환경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적인 또는 국가 간의 대테러 공조체제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라크의 민주국가건설과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건설은 중동평화의 기본 틀이며 이는 이슬람의 테러리즘환경인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슬람의 정체성이나 대의가 테러리즘은 아니다. 그러나 중동은 문화, 역사, 종교, 경제, 정치, 인종 등 다양한 갈등구조가 내재된 지역이다. 중동은 테러환경요소가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국제테러조직 동향과 대응책

김태진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法博)

< 목 차 >

Ⅰ. 서론

Ⅱ. 9.11테러 이후 국제테러 동향 및 전망
1. 테러리즘의 시대변천과 9.11 이후 국제테러 실태
2. 주요국가 지정 국제테러조직 현황
3. 국제테러조직의 활동현황 및 성향
4. 「알 카에다」의 최근 동향
5. 최근 국제테러의 특징 및 향후 전망

Ⅲ. 최근 국제테러 위협과 대응동향
1. 국제테러 위협실태
2. 「알 카에다」의 테러공격 능력 평가
3. 국제테러위협 평가 및 전망 -「알 카에다」를 중심으로
4. 최근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동향

Ⅳ. 국제사회의 대테러 강화방안 및 시사점
1. 국제사회 대테러 강화방안
2. 주요국가의 반테러법· 제도 구축방안
3.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대테러 정책현황 및 역량 강화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무역센터에 대한 조직적이고 가공할 만한 알 카에다의 테러공격은 국제사회에 크나큰 충격파를 던져 주었다. 테러가 인류의 평화적 생존권을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유린하는 반인륜적, 반문명적인 범죄행위 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1] 그 동안 세계사를 구분할 때 기원전(B.C)과 기원후(A.D)로 분류되던 기준이 앞으로는 9.11테러사건 이전(B.T)과 테러사건 이후(A.T)로 재분류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올 정도로 전대미문의 일대사건이었다.[2]

이를 계기로 테러리즘을 예방방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美國은 물론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UN은 2001.9.12 안보리 결의(1368호)를 통해, 9.11테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테러범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신속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같은 해 9.28 안보리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테러조직의 資金源과 병참지원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의(1373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3]

그러나 2001.10.2 UN총회에서 포괄적 테러 협약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데 이어 2001.10.6 對테러 대책 결의안 채택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多者條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배경에는 우선 테러의 개념규정이 간단하지 않고, 테러의 동기와 배경등과 관련하여 국가간 이해가 너무나 다양하고 첨

---

1) 美國은 9.11테러로 약 3천6백여명의 인명피해와 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명피해는 美 역사상 남·북 전쟁이후 1일 사망자 수로는 최대를 기록하였다.

2) 국제정치학자들은 文明의 충돌, 21세기 새로운 전쟁, 17세기 중엽 교황주권시대에서 국가주권시대의 막을 올린 베스트팔렌체제의 종말 등 세계사의 대변혁이 도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1996,; Victer Cha, *Globalization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Security*, Journal of Peace Research, 2000, pp. 393-395.

3) 주요 내용은 ① 테러자금 조달방지 및 차단 ②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범죄화 및 처벌 ③ 테러자금의 동결 ④ 테러자금 조달을 위한 제반 금융거래 금지 ⑤ 테러자금 수사관련 국제협력 등임

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다.[4] 이는 테러리즘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지적되어 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5]

이렇듯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9· 11 테러사건에서 보았듯이 최근의 테러양상은 인질납치· 폭파 등 기존의 방식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방법외에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등 테러 수단· 대상의 불특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테러가 공포조성의 한계를 벗어나, 그 피해 정도가 국가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6]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된 테러조직들이 무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예견치 못했던 대형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常存하고 있어 테러문제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이자, 話頭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威脅의 주체가 多樣化됨으로써 국가 뿐 아니라 테러조직 등 非국가 행위자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과거의 國家 중심의 군사적 위협수준을 넘어서는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국제테러 등 초국가적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점증되고 있다.[7]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인도 생화학무기 제조 등 종래 국가만이 가질 수 있었던 파괴력을 누구나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전세계 어디에서 테러를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4) 테러의 정의를 내리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에 많은 잉크가 소비되고 있다"고 비유하거나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기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Andrew Silke,"Terrorism and Blind Men's Elephant",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8(Autumn 1966)' pp. 12-28 참조.

5) 미· 영· 불· 캐나다 등 주요국가 反테러법상 규정된 테러 개념을 종합해보면 ①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동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② 정부· 국제기구의 作爲, 不作爲를 강요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하여 ③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公共의 안전 및 건강에 중대한 危害를 가하는 暴力行爲로 정의가 가능해진다.

6)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늘어나는 것도 테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

7) Victer Cha, *Globalization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Security*, Journal of Peace Research, 2000, PP. 393-395.

따라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국제정치학 등 관련분야 학자들은 테러가 세계도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향후 국제사회는 적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展望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8]

테러槪念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가「明白하고 現存하는 危險」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本稿에서는 먼저 최근 발생한 일련의 테러와 위협분석을 통해 국제테러발생 가능성을 진단 해 보기로 한다. 또한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의 동향· 성향 을 평가, 향후 테러정세를 전망하는 한편 對테러 세계연대· 反테러법 입법강화 등 국제사회의 對테러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와 관련된 示唆點을 豫察해 보고자 한다.[9] 아울러 우리나라의 테러정세와 테러환경 및 威脅을 조망해 봄으로써 反인륜적· 反문명적인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의 生命과 安全을 보호하기 위한 對테러 대책과 '테러방지법' 등 현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10]

Ⅱ. 9· 11테러 이후 국제테러 動向 및 展望

1. 테러리즘의 시대변천과 9· 11 이후 국제테러 實態

국제테러리즘은 60년대 극좌 및 PLO系列의 테러조직과 같은 현대

8) 英國 'Janes Intelligence Review'(2002.1월호)와 美國 'Washington Post' 2002.1.11일자 등 각국 주요 언론과 정보기관들은 '알 카에다'의 다음 테러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바 있고 특히, 금년 8월 들어 미국 등 西方國家 정보기관을 통해 알 카에다 등에 의한 '제 2의 9· 11테러'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對이라크 추가 전투병 파병을 앞두고 있어 테러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9)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테러의 개념이 없기는 하지만, 2001. '9.11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테러'는 엄연히 현존하는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서 테러개념이 정립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목적'을 중심으로 테러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려는 자세는 적절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同旨;제성호,"국제테러의 예방 및 사후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제4권3호, pp.121-160 참조.

10) 테러조직 지정· 관리, 테러위협평가· 조기경보, 국가차원의 대테러센터 설치 등 방안과 법적 제도적 대책강구가 시급하다.; 同旨, 이황우,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 조선일보 2002.11.30자 시론,; 정종섭, "정상국가의 國情院되라", 중앙일보 2003.4.3일자 시론 등 참고

적 의미의 國際테러가 태동한 이래 70년대에는 구주지역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극좌테러가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80년대에는 이념보다는 소수민족 분리독립이나 종교에 기인한 테러가 빈발하였다. 이후 90년대에는 共産主義 몰락과 國際秩序 再編과정에서 국수주의·무정부주의 성향의 테러가 대두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세계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세계에는 총 263개의 크고 작은 테러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은밀성과 고도의 조직보안을 유지한 채 세계 각처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9· 11이후 國際테러 실태를 보면 예년과 달리 2002년의 경우 對테러 국제연대 강화 및 美國 주도의 對테러戰 영향 등으로 테러발생률이 1969년이래 最低수준을 기록하고 對美 테러공격도 2001년 9· 11 테러事件 등 219건에서 2002년 77건으로 65% 감소하였다.(美國人 30명 사망)

또한 美 국무부 테러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테러공격은 2001년보다 44%나 급감(355 → 199건)했고 犧牲者도 대폭 감소(3,215 → 72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국제테러 감소의 主 요인은 ① 콜롬비아 叛軍의 송유관 공격 감소(178건 → 41건) ② 空港· 國境 등지의 對테러· 保安조치 강화 ③ 알 카에다 요원 등 3,000명의 테러분자 체포 ④ 9· 11 테러事態 이후 對테러 공조 강화,國際安保환경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주요국가 지정 국제테러조직 현황

UN은 안보리 決議案 1267호(1999년), 1333호(2000년), 1390호(2002년)에 의해 '알 카에다'· '아부 사야프 그룹' 등 87개 조직을 국제테러 관련조직(이슬람 구호기구· 금융회사 등 테러지원단체 포함)으로 指定하고 있다.[13]

11) 테러단체에 관한 자료는 Alex P. Schmid and Albert J. Jongman , *Political Terrorism: A New Guide to Actors, Authors, Concepts, Date Bases, Theories , and Literature*(1988) pp.497-700 ;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1995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1996).
12)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2*: April 2003,pp. xviii-xx.
13) www.poptel.org.uk/statewatch/news/2003/sep/08terrlists.htm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지정된 조직에 대해 지체없이 모든 기금과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領土내 입국이나 경유를 저지하며 모든 무기류와 부품 및 기술 군사훈련의 지원을 금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美國은 1996년 제정된 '테러조직지원금지법'(일명 反테러법)에 의거 國務部에서 '알 카에다'· '신인민군' 등 34개 조직을 국제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14] 표1) 테러단체로 指定되면 미국입국이 불허되고 미국내에서 일체의 기금모금행위가 금지되며 각 금융기관들은 同 조직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英國은 '反테러法 2000'에 따라 알 카에다(Al-Qa'ida)· 지하드 등 총 21개 과격 국제테러단체들을 지정하였다. 단체지정은 설립목적과 테러활동 및 조직원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嫌疑 등을 고려하여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 2001.2.28 內務長官은 테러 혐의가 있는 조직들에 대한 활동금지 권한을 가지고 이들의 英國內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15]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단체는 자금지원, 선전활동 및 3인 이상 조직원의 會合등이 全面禁止 된다.

유럽 국가연합(EU)에서 지정한 국제테러조직은 중동지역 테러단체인 아부니달(ANO), 하마스(HAMAS)와 인도 '국제 시크(Sikh) 청년동맹'(ISYF), 터키 '쿠르드 노동자黨'(PKK), 스페인 '바스크 조국해방'(ETA) 등 34개 조직이 있다.[16]

日本은「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년 12월7일 법률 제147호)」에 의거, 公安調査廳 공안심사위원회가 무차별 대량살인 행위를 한 해당 단체를 지정하고 3년간 공안조사청장이

14)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2*: April 2003,pp.149-151.
15) '反테러法 2000'에 따라 조직 활동의 특성과 규모· 조직동향 파악, 영국과 해외 英國民 대상 구체적인 위협평가, 영국內 조직의 존재 및 대테러 국제사회 지원 필요성 등 요소를 종합평가하여 '아일랜드 공화군(IRA) 등 21개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
16) 주요 테러단체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중동지역 테러단체인 아부니달, 팔레스타인 해방민주전선,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하마스가 있고 유럽에는 바스크 조국해방, 아일랜드 공화군, 적군파, 붉은 여단 등이 있고 미주 및 남미지역은 페루 빛나는 길, 4.19 운동, 미국민병대가 있고 아시아지역에는 타밀엘람 해방 호랑이, 필리핀 신인민군 등이 있다.

* 표1)

美 국무부 지정 국제테러 조직현황 (총34개)

지 역	국 가	테 러 단 체 명
중 동 (15개)	팔레스타인	아부 니달 기구(ANO) 팔레스타인 회교 지하드(PIJ) 팔레스타인 해방전선(PLF)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총사령부(PFLP-GC) 알 아크사 순교자 여단(Al Aqsa Martyrs Brigade)
	레 바 논	헤즈볼라(HIZBALLAH, 신의당) 아스밧 알 안사르(Asbat al-Ansar)
	이 란	무자헤딘 에할크(MEK)
	이 집 트	가마 이슬라미아(IG) 지하드(JIHAD)
	이스라엘	하마스(HAMAS, 이슬람저항운동) 카하네 차이(Kahane Chai)
	알 제 리	무장회교그룹(GIA) 선교와 투쟁을 위한 살라피스트 그룹(GSPC)
구 주 (7개)	영 국	Real-IRA(RIRA)
	스 페 인	바스크 조국해방(ETA)
	터 키	쿠르드 노동자당(PKK) 혁명인민해방당(DHKP)
	그 리 스	11.17 혁명기구(17-Nov) 혁명 核(RN)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미 주 (4개)	콜롬비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민족해방군(ELN) 콜롬비아 연합자위대(AUC)
	페 루	빛나는 길(SL)
아 태 (8개)	일 본	옴 진리교(Aum)
	필 리 핀	아부 사야프 그룹(ASG) 신인민군(NPA)/필리핀 공산당(CPP)
	파키스탄	하라카트-울-무자헤딘(HUM) 라쉬카르-이-타이바(LET) 자이쉬-이-모하메드(JEM)
	아프가니스탄	알 카에다(Al-Qaida)
	스리랑카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

관찰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옴 진리교' 등을 테러단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이슬람교 자선단체로 「오사마 빈 라덴」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제 이슬람구원기구(IIRO)의 일본지부 개설과 관련 활동을 강화 중에 있다.[17] 그 외 우리나라의 경우는 테러조직과 관련하여 국가 對테러 활동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국제테러조직 현황을 지역별로 64개국 263개 조직이 있다고 발표하였다.[18]

3. 국제 테러조직의 활동현황 및 性向[19]

현재 지역별로 활동중인 테러조직을 보면 亞太지역은 「알 카에다」 등 81개, 구주지역은 스페인 바스크 조국해방 등 92개, 중동지역은 레바논 헤즈볼라 등 39개, 미주지역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등 26개 아프리카지역은 부룬디 민족해방전선 등 25개 조직으로 총 64개국에서 263개 조직이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 활발히 테러를 자행하는 대표적인 테러조직들을 성향별로 보면, 세계 각지에 세포조직을 보유한 ① 알 카에다· 헤즈볼라· 제마 이슬라미야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② 체첸· 타

17) 日本 공안조사청은 일본내에 약 150개의 이슬람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8) 국가정보원, 세계테러조직총람, (98.9). 19면, ; 2002년도 테러정세,(2003.1), 23-25면

【 지역별 국제테러조직 현황 】

계	아· 태	구 주	중 동	미 주	아프리카
64개국 263개 조직	17개국 82개 조직	15개국 96개 조직	11개국 37개 조직	8개국 25개 조직	13개국 23개 조직

【 성향별 국제테러조직 현황 】

계	극 좌	극 우	민족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기 타
263개 조직 (100%)	54개 조직 (21%)	52개 조직 (20%)	100개 조직 (38%)	44개 조직 (16%)	13개 조직 (5%)

19) 국가정보원, 2002년도 테러정세 ,2002.1, 38-82면; 여기에서는 지역별 국가의 테러정세와 테러조직 활동상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밀족 등 민족분리주의 단체 ③ 일본 옴진리교와 같은 사이비 종교집단 ④ 중남미 마약카르텔 등의 초국가적 범죄조직 등이 부각되고 있다.[20] 이들 테러조직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알 카에다' 조직은 「오사마 빈 라덴」이 198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소항전 참전용사들을 결집, 창설한 대표적인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조직으로 1998년 2월 알 카에다의 주도하에 전세계 이슬람 테러조직 연합체를 형성하였으며 9· 11 테러 등 주로 對美· 對西方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자유세계의 公敵 1호로 지목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美國의 아프간 공격으로 '알 카에다'는 궤멸되고 잔당들은 敗走하였으나「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되더라도 독자활동이 가능하도록 세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테러훈련을 받은 수만명의 다국적 조직원과 훈련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간전에서 패퇴한 다수의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중동아 지역으로 잠적한 상태로 최근 조직을 재건하고 동남아와 중동 등지에서 대형 테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4. 알 카에다의 최근동향

「알 카에다」는 2001.9.11 뉴욕 무역센터 빌딩에 소속 테러분자 19명을 동원하여, 史上 최악의 국제테러를 감행하였다.[22] 이 사건은 美 本土내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를 상징하는 중요 건물들에 자살 충돌함으로써 21세기의 '뉴테러리즘'을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23]

20) 상세내용은 국가정보원, 전게서, 23-26면 참조.
21) 알 카에다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총 44개국인데, 中東은 이라크, 예멘,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사우디 등 17개국이고, 阿洲는 소말리아, 케냐 등 6개국이며, 亞太지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8개국, 歐洲는 영국, 체첸, 터키, 코소보, 등 9개국, 美洲지역은 미국, 캐나다, 우루과이, 에콰도르 등 4개국이다.
22) '9· 11 테러사건'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좁은 공간에서 가장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실행에 옮길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이다.
23) '뉴테러리즘'은 99년 美국방부 등의 후원을 받는 민간연구소 랜드(RAND)가 정립한 개념으로 초국적· 초대형· 무차별화 되고있는 현대테러리즘을 의미하며, 수퍼테러리즘이라 통칭되기도 한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만 78개 國籍人 3,600여명의 인명이 희생된 9· 11 對美 테러야말로 '뉴테러리즘'의 전형이라 하겠다.

9· 11 다음날 미 부시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다"고 성토하였으며 당시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알 카에다의 테러공격을 비난하고, 외교· 경제· 정보· 법집행·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對테러연합에 가담하였다. 그 해 10.7 아프가니스탄內 알 카에다 훈련캠프와 탈레반 정권 군사시설을 겨냥하여 대테러 연합의 군사적 조치인 '무한자유작전' (Operation Enduring Freedom)이 시작되었다. 9· 11이후 미국의 對테러전쟁인 對아프간戰 개전 후 1개월여만에 탈레반 정권은 붕괴되었고 60여개국에서 약 1,000명의 알 카에다 조직원이 체포되었다.[24] 이들은 아프간 응징전쟁으로 敗走하였으나 3,000 ~ 5,000명으로 추산되는 알 카에다 잔존세력이 세계도처에 잠복, 은신중인데 지난해 초부터 조직을 재결집하여[25] 中東과 東南亞 등 각지에서 연계조직망을 동원, 직· 간접 테러를 재개하고 특히, 이라크戰 기간중에는 미국의 對테러전에 반대하는 국제여론 추이를 보며 테러를 자제하다가 終戰後 대형 테러재개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알 카에다가 직접 자행한 테러로는 2002.3.17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기독교회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美外交官 가족 등 40여명을 살상하였고 2002.4.11 튀니지 제르바섬 유대교 예배당에 가스트럭 자살충돌 테러로 49명을 살상하였다.[26] 같은 해 10.6 예멘 연안에서 프랑스 유조선 '랭부르호'에 폭탄 적재 소형선박을 충돌시켜 선박 파손 및 화재를 유발하였고 2003.5.12-13 사우디 리야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180여명이 살상된 연쇄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하였다. 한편,「알 카에다」는 西方諸國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點組織 형태의 '假想 組織網'을 새롭게 도입하여 피라미드式 階級組織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완하였다. '假想 組織網'은 美國처럼 강력한 단속기관이

24)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동남아 등지에 산재해 있는 전세계의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을 테러활동을 위한 훈련지 및 활동 근거지로 삼아왔다.
25) 지난 5년간 동 조직의 훈련캠프에서 훈련을 받은 과격분자는 11,000 - 2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6) 범인인 니자르 나와르는 미상시기 아프간의 알 카에다 기지에서 테러훈련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지령을 하달 받기 위해 上部에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組織員· 小그룹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수행하는 비밀 조직망이다. 일명 '指示없는 抵抗'으로 불리우기도 한다.[27] 특히 인터넷의 발전은 '假想 組織網'의 확산을 촉진시키고 「알 카에다」의 力量을 배가시키는데 기여했는데, 일부 過激 이슬람 웹 사이트는 爆發物 제조방법과 秘密組織 결사 방법을 제공하면서 「빈 라덴」 追從者들에게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美國 여권을 소지한 라틴계 回敎徒를 모집하는데 있어 채팅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세력을 재결집하여 추가테러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최근 국제테러의 특징 및 향후 전망[28]

최근에 발생하는 테러사건을 살펴보면, 테러 발생 후에도 과거와 달리, 첫째 공격주체와 목적이 밝혀지지 않아 索出과 根絶에 한계가 있고 둘째, 공격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고한 民間人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셋째, 인터넷 등 첨단 통신장비를 이용한 초국적 연계조직으로 구성되어 특정 지도자를 제거해도 관련조직 모두를 無力化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넷째, 사건이 짧은 시간에 긴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섯째, 고성능 폭발물과 생화학 물질 등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며 여섯째, 사건의 초대형화로 국가의 안보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테러의 특징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對테러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27) 假想網은 1993년 CIA요원들을 사살한 「미르 아이말 칸시」처럼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테러분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듯하며, 강력한 최신 武器 출현으로 이들의 위협이 더욱 커졌다. 일례로 파키스탄에서 납치(2002.2)된 WSJ紙의「대니얼 펄」 記者 살해혐의로 死刑을 언도받은「사에드 세이크」가 點組織들의 공격을 예고한 뒤 정체불명의 連鎖 테러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28) 2002년도에도 여러건의 大型테러가 있었으나 死傷者는 9· 11테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2001년도의 9,947명(사망 5,509명, 부상 4,438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전년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2002년도 테러정세, 3면.

마찬가지로 9· 11 테러 이후 美國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알 카에다의 최대 지원세력으로 지목된 아프간 탈레반 정권과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면서 알 카에다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알 카에다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으로 인해 아프간에 구축해 두었던 대부분의 테러 인프라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테러역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도자「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과 파키스탄 접경지역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說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아랍 출신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 추종세력이 건재할 뿐 아니라 탈레반 殘黨 및 이라크 후세인 추종세력들과 합세,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美軍 등 연합군과 협력자에 대한 테러를 격화하고 있다.[29]

특히, 아프간에서 패퇴한 후 동남아 등 각지로 흩어진 조직원들이 현지 연계테러조직들과 합세하여 세계도처에서 테러를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국가들은 심각한 테러위협에 예외없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최근 국제테러 위협과 대응동향

1. 국제테러 위협실태[30]

가. 테러支援國家의 활동실태 및 테러위협

美國은 93년 이후 현재까지 北韓·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個國을 테러支援國으로 연속지정하고, UN은 이들 國家에 대해 武器·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경제원조· 국제금융기관의 借款

29) 아프간내 테러는 작년 7건에서 금년 현재 21건으로 급증하였고, 이라크내 테러는 작년 0건에서 금년 현재 27건으로 급증 (終戰후 2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家情報院, 월간 테러정세(2003.10월호) 참조.

30) 일반적으로 국제테러 위협은 ① 국가지원 테러 ② 지하드(聖戰)를 내세우는 알 카에다 및 연계세력 ③ 공식적 국제테러 조직등의 3개 범주로 분류된다. 本稿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제공 금지 등의 制裁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2003.4 美 국무부가 발표한 '年例 테러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제테러 위협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31]

(1) 北韓

北韓은 1987년 이후 테러를 직접 지원하지 않았으나, 9· 11 테러事態 이후 對테러政策 천명 및 國際協約 가입 등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對테러관련 12개 國際 協定· 議定書중 6개만 가입하는 등 실질적인 對테러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N 安保理 決議案 1373호 이행 및 테러분자들에 대한 금융동결 조치가 미흡했고, 美國의 對테러회의 개최 제안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日 적군파 요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고, 테러조직에 무기를 판매했으며, 美國이 테러支援國으로 지정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이란

이란은 가장 적극적인 테러支援國으로서,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정보보안부(MIS) 등이 테러 지원· 기획에 직접 연관되어 있고, 각종 테러조직에 政治的 목표 달성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권장하는 한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헤즈볼라· 하마스· 지하드 등에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反이스라엘 테러 자행을 독려하고 있다.

(3) 이라크

이라크는 정보국(IIS)이 對西方 테러를 직접 준비하는 등 테러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反體制人士 위협· 암살 등과 함께 對美· 이스라엘 테러를 자행해 왔고 무자헤딘에할크(MEK)· 아부니달· 팔레스타인 解放

31)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2*, : April 2003,pp.76-82.

戰線(PLF) · 아랍 解放戰線(ALF) 등에 은신처· 작전기지를 제공했으며 특히 하마스· 지하드 등이 인티파다(민중봉기)· 자살폭탄테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財政· 물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알 카에다에게 은거지 및 경유지 제공 등 테러지원 활동을 한 바 있다.

(4) 쿠바

쿠바는 관타나모에 포로수용을 용인하고, 12개 對테러協約에도 가입하였으며 北아일랜드공화군(IRA) 조직원 체포· 기소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美國의 對테러戰 및 對테러政策을 강력 비난하고, 「바스크 祖國과 自由」(ETA)· 무장혁명군(FARC)· 민족해방군(ELN) 등 테러조직에 은신처도 제공한 테러지원 국가이다.

(5) 리비아

리비아는 「카다피」가 美國의 對테러戰 옹호 입장을 표명하고, 알 카에다 조직원 체포 및 테러조직 지원 차단 등 對테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팬암기· UTA 폭파 사건에 대한 책임· 보상금 지급, UN 安保理 요구사항 이행 등은 미흡한 실정이나 최근 배상금 27억달러(한화 3조 2천400억원 상당)를 지급하고 있어 美 CNN방송 헤드라인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UN제재 해제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6) 수단

수단은 9· 11 美 테러事態 이전부터 극단주의· 테러용의자 체포에 적극 협조하는 등 對테러활동에 협력해 왔으나, 하마스· 지하드 등 일부 테러조직에 은신처와 군수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7) 시리아

시리아는 自國내 美 國民 보호활동 강화, 알 카에다 색출 협력, 言論의 테러조장 억제 등 테러방지 노력을 전개하면서도 UN에서 팔레스타인·레바논의 테러조직을 옹호하고, 팔레스타인 人民解放戰線(PFLP)·지하드·하마스 등에 정치·財政的 지원과 함께 다마스커스內 테러본부 설치도 허용한 바 있다.

나. 과격테러조직 활동실태 및 테러위협

앞서 테러지원국가의 경우 국가가 테러를 지원하거나 테러를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이 테러를 자행하는데 반해 과격 테러조직들은 비국가적 조직으로 2-3개 국가에 걸쳐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비밀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그 위협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1) 알 카에다 조직

「알 카에다」는 아프간戰 이후 이란을 주요 활동거점으로 삼고 있는데 조직원들이 이란을 경유하여 동남아·체첸·그루지야 등지로 침투시킨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되었으며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美國의 아프간 공습이후 활동 근거지를 상실하여 全世界로 분산되었으며, 各國의 對테러활동 강화로 인해 대규모 테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현저히 약화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테넷」美 CIA局長은 최근「알 카에다」와 그 殘黨들이 여전히 美國의 國家安保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2-5년간 그 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美·유럽 등 各國의 情報機關들은「알 카에다」가 이라크戰을 계기로 젊고 호전적인 이슬람 改宗者·女性들을 대상으로 組織員을 대폭 보강했다고 評價하고「알 카에다」가 완전 궤멸되지 않고 活動力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능수 능란한 變身術'과 상황에 맞게

活動目標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유연성의 결과로 보고 있다.[32] 즉「알 카에다」는 새로운 組織員을 채용하여 다른 조직과의 聯合戰線을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生存力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美國과 同盟國들이 이에 상응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테러 종식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많다.

(2) 테러조직간 聯合戰線 구축 활동 및 테러위협

「알 카에다」는 다른 테러조직과 적극적인 聯合戰術을 구사하는데, 「빈 라덴」은 이미 1998.2 이집트의「이슬람 지하드」(EIJ) 등 4개 주요 이슬람 과격단체 指導者들과 함께「國際이슬람戰線」(IIF)을 조직했다. IIF에는 이집트의「이슬람 지하드」(EIJ)·「가마 알 이슬라미야」, 파키스탄의「자 미아 울 울레마」(JUI), 방글라데시의「지하드運動」등이 참여하였다.[33] 최근 印度 정보당국은「라슈카르 이 타이바」가 「알 카에다」 전성기 시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東南亞와 페르시아灣에서「빈 라덴」의 테러組織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알 카에다」는 이라크와 유럽의「안사르 이슬람」, 東南亞의「제마 이슬라미야」(JI), 필리핀의「모로 이슬람解放戰線」(MILF), 파키스탄의 지하드계 조직 등 全 세계의 다양한 組織과도 긴밀한 提携를 맺고 있다. 알 카에다는 이러한 同盟組織에게 資金·訓練·物資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JI는「알 카에다」와의 聯合作戰 수행 資金을 募金하기도 하였다.[34]

한편 파키스탄 지하드系 조직의 한 指導者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테러조직들이 專門知識·訓練施設·物資 등을 공유함으로써 테러 能力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분명 향후 테러가 어

32) Jessica Stern, *The Protean Enemy*, Foreign Affairs(2003.7/8), pp.27-40.
33) 2002. 3 「알 카에다」核心 멤버인「아부 주바이다」가 파키스탄의 지하드系 조직인「라슈카르 이 타이바」의 安家에서 체포된 사건으로 兩 조직간 긴밀한 연계관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34) 더욱 놀라운 것은 1998년 東아프리카내 爆彈테러를 기도했던 「알 카에다」요원의 裁判과정에서 수니派인「알 카에다」와 시아派인「헤즈볼라」가 긴밀히 협력해온 사실이 확인된 점이다. 국가정보원, 연간 테러정세 (1999.1), 참조.

떻게 자행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위협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다.「제마 이슬라미야」활동실태 및 東南亞지역 테러威脅

東南亞에서는 2002.10 발리 爆彈테러 이후에도 印尼· 필리핀· 泰國 등지에서 각종 테러가 續發함으로써 테러恐怖가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 각국은 테러 배후로 알 카에다와 연계된「제마 이슬라미야」(JI)를 지목하고 JI 組織員 색출에 주력하는 등 테러세력 團束을 강화하고 있다. JI 핵심간부「함발리」(印尼 國籍)는 印尼·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지명 수배를 받아 오던 중 2003.8.11 泰國에서 체포되자 美國이 신병을 인수· 조사중이다. 그러나 域內外 주요 言論들이 이번 10.20-21간 방콕에서 열리는 APEC 頂上會議 등 주요 행사장에 대해 JI에 의한 追加테러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 테러재연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35]

2.「알 카에다」의 테러공격 능력평가

「알 카에다」는 美國과 국제사회의 테러조직에 대한 資金凍結 조치로 자금운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美國의 아프간 공격으로 수백명의 조직원이 사망하거나 체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아프간 중심거점을 상실하였으며 프랑스· 스페인· 보스니아· 싱가포르 등지의 알 카에다 조직이 해체되고 다수의 핵심요원이 사망함으로써 지휘체계가 거의 마비됨에 따라 아프간戰 이후 잠시 테러활동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빈 라덴」과「알 자와히리」등 지도부가 건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02년 초부터 조직을 재결집하여 東南亞· 中東 등 각지에서 직· 간접적인 테러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36]

이들은 指導部의 지시가 없더라도 전세계에 잠복해 있는 세포조직과

35) JI가 APEC 頂上會議시 테러계획을 模擬한 바 있다고 2003.9.20 뉴욕 타임스紙가 보도한데 이어, 12월중 印尼내 자살폭탄 테러를 준비중이라고 싱가포르 ST紙가 9.28 각각 보도

36) 2003.3.11 사우디 일간지는 알 카에다가 여성 자살폭탄테러부대를 창설하였다고 보도

추종세력에 의한 독자적인 테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37] 이라크전 이후 이들은 이슬람권의 反美感情 확산에 편승하여 이라크戰 기간중인 2003.3.24 인터넷에 對美 전투지침을 게재하고 4.8과 4.10 각각 2회에 걸쳐 「빈 라덴」이 美· 英 연합군 공격과 對美 지원국 대상 자살테러를 지시한데 이어 5.21에는 2人者「알 자와히리」가 9.11 테러를 본받아 美· 英· 호주· 노르웨이 시설 등에 대한 자살테러를 선동하는 등 테러危脅을 지속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 카에다」가 각종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징후가 지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9· 11 테러 이전 소규모 단위로 양· 개 등 동물을 대상으로 生化學 무기 실험을 실시한 비디오 테입이 아프간戰 당시 발견된 바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은 아프간戰 수행중 화학무기 입수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빈 라덴 스스로 貧者의 무기라고 불리우는 "화학무기 공격"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아프간戰 이후 그루지야 등에 재정착하여 化學武器 개발 징후를 보였으며,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2회의 화학무기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美 정보당국은 2003.3 파키스탄내에서 보툴리늄과 살모넬라균의 독소 추출에 필요한 화학물질 및 탄저균 생산을 추진중이라는 단서를 포착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알 카에다가 化學탄두 장착무기의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고, 헤즈볼라 등과 연계하여 核· 생물무기 개발관련 과학자를 포섭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38] 이를 종합해 볼 때「알 카에다」의 테러공격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테러공격 위협은 점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9]

3. 국제테러위협 評價 및 展望 - 「알 카에다」를 중심으로

가.「알 카에다」와 국제테러 위협

37) 아프간전 패주후 약 3,000명 이상의 잔당이 각지로 흩어져 은신중이며, 아프간 훈련캠프를 거쳐간 과격분자도 11,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8) 03.2 美 CIA는 이들이 2년내 화생방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39)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들은 정규 및 非正規戰에 대비한 화력훈련과 小型航空機· SCUBA등을 이용한 테러 공격도 준비하며, 최근에는 테러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 파괴와 殺傷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4월 알 자지라 TV방송은「알 카에다」를 실질 주도하는 빈 라덴의 육성녹음을 발표하였는 데 이를 분석한 외국 情報機關들은 빈 라덴이 生存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확실치 않지만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것은 빈 라덴의 생사여부가 알 카에다의 미래를 결정짓고, 國際테러 威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사망했을 경우, 조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조직이 와해되고 전세계로 흩어져 각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개별 활동하는 양상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40]

만약 생존했을 경우, 더욱 큰 영웅으로 추대되고 西方勢力에 대항하여 싸워 이긴 유일한 인물로 지지가 급등하여 조직원 충원 및 향후 테러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이 아프간외에 어느 지역에 테러 인프라인 근거지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인데 체첸·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필리핀 등 반정부 무장투쟁이 활발하거나 빈 라덴 세력의 침투사실을 제대로 포착하기 힘든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에 요원을 침투시킨 후 현지 과격 세력의 反政府 활동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알 카에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규모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對美 報復의 열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해외주재 美공관이나 本土도 타깃이 될 수 있다.[41] 향후 아랍권의 전반적 지지가 높은데 힘입어 테러를 强化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비재래식 大量殺傷武器를 이용한 충격적· 전략적 테러감행도 예상된다. 각 지역 테러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中東圈에서 전세계로 확대해 나가려 기도할 것으로 전망된다.[42]

40) 2인자「알 자와히리」는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빈 라덴 자녀 역시 카리스마와 경험 부족으로 빈 라덴을 대체, 승계할 만한 인물이 못되는 것으로 서방국가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 세계적 권위의 국제문제연구소인 IISS의 존 칩먼 소장은 "알 카에다의 급진주의자들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극적인 테러가 미국영토에 대한 초대형 공격을 대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대형 테러가 이라크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하였다.; 연합뉴스, 2003.10.16일자 외신보도 참조.

42) 2003. 8.11 알 카에다는 아랍계 언론사 웹사이트를 통해 印尼 메리어트 호텔 공격은 알 자와히리가 약속한 일련의 공격들중 하나이며, 대테러 전쟁종식· 수감동료 석방· 미군과 동맹군의 점령지 철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

또한 알 카에다는 이슬람권의 反美 확산에 편승하여 보복테러 위협을 지속 조장해 왔는데 이번에「빈 라덴」이 육성테입 방송을 통해 이슬람 교도들에게 자살 공격으로 美· 英 및 그 지원국들에 복수하라고 선동하였으며 알 카에다 제 2인자「알 자와히리」는 5.21 9· 11 테러를 본받아 美· 英· 호주· 노르웨이 시설 등에 대한 자살테러를 전개하라고 선동한데 이어 8.3 아랍에미리트 위성방송을 통해 미국의 관타나모 억류포로들에 대한 군사재판 회부와 관련하여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경고하였다.

2001.10 美國의 아프간 攻擊 직후에는 테러를 이슬람과 西方勢力간 戰爭으로 선언하면서 全 세계 回敎徒들의 무장투쟁을 촉구하는 한편 9· 11 테러의 배후 조종자인 「람지 빈 알쉽」은 「알 카에다」의 주요 목표가 美國의 세계질서 주도에 報復하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活動目標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금년 8월 들어 미국 등 서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알 카에다 등에 의한 '제 2의 9· 11테러'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43]

나. 국제테러 威脅 展望

美 국토안보부와 교통보안청은 알 카에다가 美· 英· 伊· 호주 등지에서 항공기를 납치하여 자살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국통과 무비자 환승승객에 대해 入國 불허조치를 하고 공항만에 대한 對테러 보안활동을 강화중에 있고 美 FBI는 테러조직들이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에 폭발물을 은닉, 항공기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승객 휴대품 보안검색 강화를 촉구하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레바논 國籍者들이 무비자 환승 입국제도를 악용,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며 美· 英 경유 환승객에 대한 검색강화를

43)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03.10.15 발표한 연례보고서'군사균형 2003-2004'에서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미국영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초대형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 2003.10.16 참조.

요청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은 케냐주재 美·英 大使館 및 외국항공사,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자국 航空機의 케냐운항을 잠정중단 조치하였다.

다. 국제테러威脅 종합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 카에다' 외에 국제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으로는 세계 각지의 이슬람 교민사회와 연계망이 잘 구축된 '헤즈볼라', 東南亞地域 최대 테러위협 세력으로 浮上한 '제마 이슬라미야' 등 해외 원정테러 능력을 갖춘 조직과 中東地域 주둔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테러 능력을 보유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알 아크사 순교자여단', 이라크의 '안사르 알 이슬람', 이란의 ' 안사레 에 헤즈볼라' 등을 거론할 수 있다.[44]

테러의 대상도 과거와 달리 변화되고 있는데, 과거의 테러 대상은 대외 象徵性과 파급 효과가 큰 美軍施設이나 外國公館 등 정부시설과 기간산업시설이 주요 목표였던데 반해 최근에는 접근이 용이하고 경비가 취약한 호텔·나이트클럽·극장 등 多衆 利用施設과 항공기·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Soft Target'이 새로운 테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테러의 수단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전통적인 테러 수단인 총기류를 비롯하여 항공기(9.11 테러)·선박(프랑스 유조선 랭부르호 테러)·차량(사우디 외국인 거주지역과 印尼 나이트클럽 및 메리어트 호텔 테러, 요르단 대사관 테러 등)테러 등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생활주변의 모든 文明利器들이 테러무기로 이용되고 있고 印尼 발리테러나 메리어트 호텔 테러에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염소산칼륨

44) 「하마스」는 '에제딘 알 카삼 여단'이라는 무장단체를 보유, 지난 3.29 이라크戰 관련 연합군 공격을 위해 자살특공대 1만명 모집을 촉구, 「안사르 알 이슬람」은 2001년초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에 창설된 수니파 테러조직으로, 알 카에다와 협력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으며 3.20 대미 자살테러 경고에 이어 3.31 인터넷 웹사이트에 연합군 대상 자살공격 경고문 게재하였으며, 「안사레 에 헤즈볼라」는 95년 이란에서 창설된 시아파 테러조직으로, 01.2 인터넷에 미국에 대항하는 자살특공대 모집광고를 게재하는 등 활동강화

을 이용한 사제폭약이 사용되었고, 독약·독가스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도 예상되는 등 테러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어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45]

한편 이슬람 테러단체의 활동무대도 중동에서 서남아를 거쳐 동남아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이슬람 국가에서 '제마 이슬라미야' 등 현지 테러조직과 연계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태국·캄보디아 등지에서 알 카에다 연계 테러분자들이 검거되고 있다. 최근 대테러전문가인 구나라트나 敎授(Gunaratna, 싱가폴 국방 및 전략문제연구소)는 알카에다 조직의 전세계적인 테러능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46]

알 카에다가 과거 日本에서 테러 공작장비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 등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東北亞 中心國家인 한국·일본 등이 직접적 테러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최근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동향

國際社會는 최근 이러한 국제테러 추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국가간 또는 지역간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對테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테러威脅이 고조되고 있는 東南亞에서는 금년 7.1 말레이시아에 '동남아 지역 대테러센터'(SEARCCT: South East Asia Regional Center for Counter Terrorism)가 설립되어 운영에 들어갔으며 그 외 8월초에는 이집트·에티오피아·케냐·부룬디·콩고·지부티·에리트리아·르완다·탄자니아·우간다 등 아프리카 11개국은 域內 테러예방과 사건발생시 공동대응을 위해 對테러 협력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濠洲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아·태

45) 이와관련 美 랜드연구소는 2002.10 毒物戰(Toxin Warfare)을 발표하고, 산업활동과정에서 취득이 가능한 일반 危險物質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www.rand.org
46) 獨逸 시사주간지 J.Kremb기자와 Gunaratna교수와의 문답형식 보도: Der Spiegel 5.19자 참조

지역 테러 대책회의' 개최를 추진중에 있는 등 각 나라마다 테러위협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가. 최근 동남아 제국의 對테러 공조활동[47]

(1) 인도네시아

印尼는 테러犯 신고·접수를 위해 발리 주민들을 활용한「地域別監視體制」를 구축했으며 불순 세력의 해상 침투에 대비하여 2003.9.15-21간 브루나이와 合同軍事訓練을 실시하고 9.17에는 싱가포르와 海上安保 협력을 확대하는 등 安保態勢를 확립하였고, 말레이시아·泰國·필리핀 등 주변국 情報機關과 테러관련 情報를 수시로 교환하는 등 긴밀한 對테러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파키스탄 政府가 테러 혐의로 「함발리」동생 등 印尼 유학생들을 체포한 것과 관련, 2003.9.30 對테러 담당 警察官 4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알 카에다 또는 JI와의 連繫 여부를 합동조사중에 있다.

(2) 泰國

總理室 산하에「APEC 安全 T/F」를 설치하고 각국 頂上 身邊安全을 위해 APEC 행사장 주변에 戰鬪機와 兵力 2만명을 배치하고 국경통제·비자발급 규제 등을 강화하면서, 印尼·말레이시아 등과 역내 과격 회교단체에 대한 情報交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탁신」總理는 테러犯들의 입국을 차단키 위해 마이크로 칩을 내장한 새 旅券을 발급할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10.1 방콕 포스트紙가 "APEC 테러에 동원될 휴대용 미사일이 캄보디아에서 밀반입되었다"는 說을 보도함에 따라 軍·情報機關 주도로 미사일 소재 파악에 주력하면서, 중장비·트럭 등의 공항 진입을 통제하는 등 對테러 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47) *South-east Asia' War on Terror*, Economist, U.K, 2003.6.26.

(3) 필리핀[48]

「아로요」大統領은 테러척결 의지를 재강조하면서 최근「레예스」前 국방장관을 對테러 大使로 任命하고 美國 및 周邊國과의 共助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레예스」大使는 JI등 테러조직 자료수집을 위한「反테러센터」설립 등 역내제국간 協力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2003.10.18「부시」大統領의 필리핀 방문과 관련 美國과의 共助하에 제반 安全措置를 확립해 나가면서 마닐라 국제공항에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出入國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으로 있다. 또한 極烈 回敎·共産叛軍 등 테러집단을 監視하면서 9.29-10.8간 이들의 근거지인 남부지역 인근 海上에서 말레이시아와 合同訓鍊을 실시하는 등 對테러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 東南亞 國家聯合(ASEAN)

東南亞 國家聯合(ASEAN)은 對테러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양국간 軍事協力을 多國간 합동 군사훈련으로 확대·실시키로 陸參總長會議에서 합의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최근 JI 요원 465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周邊國에 통보한 가운데 「마하티르」總理는 東南亞 각국이 테러 防止 및 被害 최소화를 위한 自體 防禦力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브루나이는 발리 개최 ASEAN 頂上會議에 앞서 印尼·필리핀·말레이시아·泰國·캄보디아 등 ASEAN 5개국이 旣체결한 「反테러 協定」에 2003.10.5자로 署名하였는데 이번 협정은 테러·국경범죄 등 安保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航空機 승객명단 공유, 合同訓鍊 실시 등 對테러 共同對應方案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다.

48)「아부 사야프」그룹은 필리핀 ABC-CBN방송을 통해 지난 3월 민다나오 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와 관련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美·필리핀 軍은 對테러 합동작전을 전개, 이슬람 반군등을 체포하는 등 대테러 공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